

鏡을 둘러싼 古代韓日

다나카 도시야키(시가현립대학교)

역: 강은영

鏡에 관한 기록을 통해, 古代韓日關係를 언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 고대의 기록에는 鏡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거울 출토가 극히 적은데, 이와도 관계있다고 생각된다. 본래 한국에서는 거울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게 아닌가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거울에 관한 몇개의 기록을 통해, 거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서술코자 한다.

1. 아메노히보코 전승

신라의 왕자로 여겨지는 아메노히보코(『日本書紀』에서는「天日槍」, 『古事記』에서는「天之日矛」라고 표기하고 있다. 『風土記』의 일부는「天日杵」라고 한다)가 일본에 渡來하면서 거울을 가져왔다. 또한 전승지의 하나로써「鏡村」가 있다.

아메노히보코 전승은 『日本書紀』에 垂仁紀①3년조 ②88년조 ③90년조 ④99년조의 네 곳, 『古事記』에 ⑤垂仁段 ⑥応神段的 두 곳, 게다가 『播磨国風土記』에 ⑦揖保郡⑧~⑬宍粟郡의 여섯 곳, ⑭⑮神崎郡의 두 곳 등 합한 아홉 곳에 나타난다. 또한 『筑前国風土記』(佚文) ⑯도 있다.

이중에서 거울에 관한 것은 ①②⑥⑯뿐이지만, 전승 전체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료를 게재하기로 한다.

우선 ①의 『日本書紀』垂仁紀 3년조는 편의상 I~III로 나누어 나타낸다. 【 】는 分註이다.

I. 三年春三月、新羅王子天日槍來歸焉。將來物、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々赤石玉一箇・出石小刀一口・出石杵一枝・日鏡一面・熊神籬一具、并七物。則藏于但馬國、常為神物也。【II. 一云、初天日槍、乘艇泊于播磨國、在於宍粟邑。時天皇遣三輪君祖大友主與倭直祖長尾市於播磨、而問天日槍曰、汝也誰人、且何國人也。天日槍對曰、僕新羅國主之子也。然聞日本國有聖皇、則以己國授弟知古而化歸之。仍貢獻物、葉細珠・足高珠・鵜鹿々赤石珠・出石刀子・出石槍・日鏡・熊神籬・胆狹淺大刀、并八物。仍詔天日槍曰、播磨國宍粟邑・淡路島出淺邑、是二邑、汝任意居之。時天日槍啓之曰、臣將住處、若垂天恩、聽臣情願地者、臣親歷視諸國、則合于臣心欲被給。乃聽之。於是、天日槍自菟道河泝之、北入近江國吾名邑而暫住。復更自近江經若狹國、西到但馬國則定住處也。是以、近江國鏡村谷陶人、則天日槍之從人也。III. 故天日槍娶但馬國出嶋人、太耳女麻多鳥、生但馬諸助也。諸助生但馬日槍杵。日槍杵生清彥。々々生田道間守之。】

(I. 3년 춘삼월, 신라국의 왕자 天日槍이 왔다. 가져 온 것은 羽太玉 한 개・足高玉 한 개・鵜鹿鹿 赤石의

玉 한 개・出石의 小刀 한 개, 出石의 杵 한 개, 日鏡 一面, 熊神籬一具, 합해서 7점이었다. 이것을 但馬國에 보관하여 神寶로 삼았다.

【II. 一說에는 처음 天日槍이 배를 타고 播磨國에 도착하여 宍粟邑에 머물렀다. 천황이 三輪君의 祖인 大友主, 倭直의 祖인 長尾市를 보내어 天日槍에게 「그대는 누구인가? 또한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天日槍은 「나는 新羅國王의 아들입니다. 日本國에 聖王이 계시다고 들었기에 자신의 나라를 동생 知古에게 주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친 물건은 葉細의 珠・足高의 珠・鵜鹿鹿의 赤石珠・出石의 刀子・出石의 槍・日鏡・熊의 神籬・胆狭浅의 大刀, 모두 합하여 8종류였다. 천황은 天日槍에게 詔하여, 「播磨國 宍粟邑와 淡路島 出浅邑의 두 읍중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라」고 하였다. 天日槍이 말하길, 「내가 살 곳에 대해 만일 臣의 바램을 허락 하신다면, 스스로 諸國을 둘러 보고 臣 마음에 맞는 곳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天日槍은 宇治河를 거슬러 올라가 近江國 菟名邑에 잠시 머물러 살았다. 또 다시 近江으로부터 若狹國을 거쳐 但馬國에 이르러 居所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近江國 鏡邑 谷의 陶人은 天日槍을 따라 온 사람들이다.

III. 天日槍은 但馬國 出石의 사람인 太耳의 딸 麻多烏를 부인으로 삼아, 但馬諸助를 낳았다. 諸助는 但馬 日槍杵를 낳고, 日槍杵는 清彦를 낳았으며 清彦는 田道間守를 낳았다】)

다음은 ②의 垂仁紀 88년조이다. 이 경우도 편의상 I과 II로 나누어 게재한다.

I. 八十八年秋七月己酉朔戊午、詔群卿曰、朕聞、新羅王子天日槍、初来之時將來宝物、今有但馬。元爲國人見貴、則爲神寶也。朕欲見其宝物。即日、遣使者、詔天日槍之曾孫清彦而令献。於是、清彦被勅、乃自捧神寶而献之。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鹿赤石玉一箇・日鏡一面・熊神籬一具。唯有小刀一。名曰出石。則清彦忽以爲非献刀子、仍匿袍中、而自佩之。天皇未知匿小刀之情、欲寵清彦、而召之賜酒於御所。時刀子從袍中出而顯之。天皇見之、親問清彦曰、爾袍中刀子者、何刀子也。爰清彦知不得匿刀子、而呈言、所献神寶之類也。則天皇謂清彦曰、其神寶之、豈得離類乎。乃出而献焉。皆藏於神府。然後、開宝府而視之、小刀自失。則使問清彦曰、爾所献刀子忽失矣。若至汝所乎。清彦答曰、昨夕、刀子自然至於臣家。乃明旦失焉。天皇則惶之、且更勿覓。是後、出石刀子、自然至于淡路嶋。其嶋人謂神、而爲刀子立祠。是於今所祠也。II. 昔有一人、乘艇而泊于但馬國。因問曰、汝何國人也。對曰、新羅王子、名曰天日槍。則留于但馬、娶其國前津耳【一云、前津見。一云、太耳。】女、麻陀能烏。生但馬諸助。是清彦之祖父也。

(I. 88년 가을 7월 10일, 천황은 群卿에게 詔하여 「新羅의 王子 天日槍이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온 보물은 지금 但馬에 있다. 國人들이 귀히 여겨 神寶로 삼았다하니 짐이 그 보물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 날 사신을 보내어 天日槍의 曾孫 清彦에게 헌상하도록 詔하였다. 清彦은 詔를 받고 스스로 神寶를 헌상하였다. 羽太玉 한 개・足高玉 한 개・鵜鹿鹿의 赤石玉 한 개・日鏡 一面・熊神籬 한 개였다. 다만 刀子 한 개가 있어 이름을 出石라고 하였다. 清彦는 갑자기 이 刀子是 바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옷 속에 감추어 자신이 차고 있었다. 천황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清彦을 치하하기 위해 御所에서 술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刀子在 옷 속에서 드러났다. 천황은 이를 보고 清彦에게 묻기를 「네 옷 속의 刀子是 무슨 刀子인가」라고 하였다. 清彦은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여 털어 놓기를 「바친 神寶중의 하나입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그 神寶는 다른 것들과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가」라고 하자 그 것을 꺼내어 바쳤다. 神寶는 전부 神府(미쿠라)에 보관하였다. 그 후 神府를 열어 보니, 刀子在 사라지고 없었다. 사람을 시

켜 清彦에게 묻길, 「네가 바친 刀子가 갑자기 없어졌다. 너의 집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清彦이 대답하길, 「어제 저녁, 刀子가 스스로 臣의 집에 왔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두려워 삼가하며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 出石의 刀子는 저절로 淡路島에 갔다. 그 섬사람들은 이를 신이라고 생각하여, 刀子를 위해 사당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 II. 옛날에 한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但馬國에 왔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新羅國의 왕자로, 이름은 天日槍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但馬에 머물러 그 나라 前津耳의 딸 麻陀能鳥을 맞이 하여, 但馬諸助를 낳았다. 이가 清彦의 祖父이다.)

다음은 ③의 90년조이다.

九十年春二月庚子朔、天皇命田道間守、遣常世國、令求非時香菓。【香菓、此云箇俱能未。】今謂橘是也。

(90년 춘2월 경자삭, 천황은 田道間守에게 명하여 常世의 나라에 가서 非時의 香菓를 구해오도록 하였다 【香菓는 箇俱能未라고 읽는다】. 지금 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다음 ④의 99년 明年條는 99년조에 이어져 있고, 「明年」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르기로 한다. 99년조 본문도 게재한다. 또한 편의상, I 과 II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九十九年秋七月戊午朔、天皇崩於纏向宮。時年百?歲。

冬十二月癸卯朔壬子、葬於菅原伏見陵。

I. 明年春三月辛未朔壬午、田道間守、至自常世國。則齋物也、非時香菓八竿八縵焉。田道間守、於是、泣悲歎之曰、受命天朝、遠往絕域。萬里蹈浪、遙度弱水。是常世國、則神仙秘區、俗非所臻。是以、往來之間、自經十年。豈期、獨凌峻瀾、更向本土乎。然賴聖帝之神靈、僅得還來。今天皇既崩。不得復命。臣雖生之、亦何益矣。乃向天皇之陵、叫哭而自死之。群臣聞皆流淚也。II. 田道間守、是三宅連之始祖也。

(I. 明年 春三月 辛未朔壬午에, 田道間守는 常世國으로부터 돌아왔다. 가져온 물건은 非時香菓・八竿八縵이다. 田道間守는 이에 [천황이 봉어했음을 듣고] 슬피 한탄하기를 「天皇으로부터 명을 받들어 저 먼 곳에 갔습니다. 萬里浪을 넘고 저 먼 弱水를 건넜습니다. 이 常世國은 신선의 나라로서 숙인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때문에 常世를 왕래하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높은 파도를 건디고, 또한 어떻게 본토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聖帝의 神靈에 기대어 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천황이 이미 봉어하셨기 때문에 돌아 온 것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臣이 살아 있는들 무슨 이익이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천황의 능을 향해 울부짖으며 스스로 죽었다. 群臣들이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II. 田道間守는 三宅連의 시조이다.)

『日本書紀』기사는 이상과 같다. 보다시피 아메노히보코의 직접적인 도래기사는 ①이고, ②에도 약간 보이지만 ②의 주제는 증손인 清彦의 보물현상이며, ③④는 清彦의 아들인 田道間守의 常世國 왕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어서 『古事記』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⑤ 垂仁段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又天皇以三宅連等之祖、名多遲麻毛理、遣常世國、令求登岐士玖能迦能木實【自登下八字以音】。故多遲麻毛理、遂到其國、採其木實、以縵八縵・矛八矛、將來之間、天皇既崩。爾多遲麻毛理、分縵四縵・矛四矛、獻于

太后、以縵四縵・矛四矛、獻置天皇之御陵戸、而擎其木實、叫哭以白、「常世國之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持參上侍」、遂叫哭死也。其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者、是今橘者也。此天皇御年、壹佰伍拾參歲。御陵在菅原之御立野中也。又其太后比婆須比賣命之時、定石祝作、又定土師部。此后者、葬狹木之寺間陵也。

(또한 천황은 三宅連 등의 조상인 多遲摩毛理를 常世國에 보내어, 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를 구해오도록 했다. 故로 多遲摩毛理는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러, 그 나무 열매를 따고, 縵八縵 (카게야카게)・矛八矛 (호코야호코)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이에 천황은 이미 붕어하였다. 多遲摩毛理는 縵四縵・矛四矛를 나누어 太后에게 헌상하고 縵四縵・矛四矛를 천황 陵戸에 바치며, 그 나무 열매를 들어올려 울부짖기를 「常世國의 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울부짖다가 죽고 말았다. 그 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은 지금의 橘이다. 이 천황 (垂仁)의 나이는 153세였다. 능은 菅原의 御立野 안에 있다. 또한 그 太后인 比婆須比賣命 때, 石祝作 (이시키투스쿠리)를 정하고 土師部 (하니시베)도 정해졌다. 이 후는 狹木 (사키)의 寺間陵 (테라마노하카)에 장사지내졌다.)

다음은 ⑥의 応神段으로, 下記와 같다. 이것도 편의상 I~Ⅲ으로 나누어 살핀다.

I. 又昔有新羅國王之子。名謂天之日矛。是人參渡來也。所以參渡來者、新羅國有一沼。名謂阿具奴摩【自阿下四字以音】。此沼之邊、一賤女晝寢。於是日耀如虹、指其陰上。亦一有賤夫。思異其狀、恒伺其女人之行。故是女人、自其晝寢時、妊身、生赤玉。爾其所伺賤夫、乞取其玉、恒裹着腰。此人營田於山谷之間。故耕人等之飲食、負一牛而、入山谷之中、遇逢其國主之子、天之日矛。爾問其人曰、「何汝飲食負牛入山谷。汝必殺食是牛」、即捕其人、將入獄囚。其人答曰、「吾非殺牛。唯送田人之食耳」。然猶不赦。爾解其腰之玉、幣其國主之子。故赦其賤夫、將來其玉、置於床邊、即化美麗孀子。仍婚爲嫡妻。爾其孀子、常設種種之珍味、恒食其夫。故其國主之子、心奢毆妻、其女人言、「凡吾者、非應爲汝妻之女。將行吾祖之國」、即竊乘小船、逃遁渡來、留于難波。【此者坐難波之比賣碁曾社、謂阿加流比賣神者也】。II. 於是天之日矛、聞其妻遁、乃追渡來。將到難波之間、其渡之神、塞以不入。故更還泊多遲摩國。即留其國而、娶多遲摩之侯尾之女、名前津見、生子、多遲摩母呂須玖。此之子、多遲摩斐泥。此之子、多遲摩比那良岐。此之子、多遲摩毛理。次多遲摩比多訶。次清日子【三柱】。此清日子、娶當摩之咩斐、生子、酢鹿之諸男。次妹菅電上由良度美【此四字以音】。故上云多遲摩比多訶、娶其姪、由良度美、生子、葛城之高額比賣命。【此者息長帶比賣命之御祖】。III. 故其天之日矛持渡來物者、玉津寶云而、珠二貫。又振浪比礼【比礼二字以音。下效此】・切浪比礼・振風比礼・切風比礼。又奧津鏡・邊津鏡、并八種也。【此者伊豆志之八前大神也】。

(I. 또 옛날, 신라국왕의 아들이 있어 이름을 天之日矛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바다를 건너왔다. 도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新羅國에는 한 개의 늪이 있고 이름하여 阿具奴摩라고 한다【註略】. 이 늪가에 한명의 천한 여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일광이 무지개처럼 그 여자의 음부를 비췄다. 또한 한사람의 비루한 남자가 있어 그 모습을 이상케 여겨, 그 후 항상 여자의 행동을 몰래 엿보았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낮잠을 잤을 때부터 임신하여 붉은 옥을 낳았다. 이를 엿보고 있던 비루한 남자는 빌어서 그 옥을 손에 넣고 항상 싸서 허리에 차고 있었다. 이 남자는 밭을 山谷間에 일구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부들의 음식물을 한마리의 소 등에 싣고 山谷에 들어갔다가 저 국왕의 아들인 天之日矛와 만났다. 天之日矛가 그 남자에게 물기를, 「어찌하여 너는 음식물을 소에 싣고 山谷에 들어가려하는가. 너는 필경 이 소를 잡아 먹으려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금새라고 그 남자를 잡아 牢屋에 넣으려하였다. 그 남자는 대답하길, 「나는 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농부의 음식을 운반하려는 것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天之日矛는 더욱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玉을 풀어 그 국왕의 아들에게 바쳤다. 이를 받

은 天之日矛는 그 천한 남자를 용서하고 그 옥을 가져 와, 마루 근처에 놓아 두자, 옥은 아름다운 처자로 모습을 바꾸었다. 이에 天之日矛는 그 처자와 결혼하여 正妻로 삼았다. 그 이후 처자는 항상 여러 산해 진미를 준비하여 그 남편을 대접했다. 그런데 그 국왕의 아들은 마음이 高慢하여 妻를 욕함에 그 여인은 「무릇 나는 당신의 처가 될만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조상의 나라로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곧바로 몰래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듯 건너와 難波에 머물렀다. 【이는 難波의 比売碁會 (히메코소)社에 鎮座하는 阿加留比売 (아카루히메)라는 신이다】. II. 한편, 天之日矛는 그 처가 도망갔다는 것을 듣고, 곧바로 그 뒤를 쫓아 건너와 難波로 가려고 했지만, 그 해협의 신이 막고 넣어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다시 우회하여 但馬國에 정박하였다. 그대로 그 나라에 머물러, 多遲摩之俣尾之 (타지마노마타오)의 딸로 이름이 前津見 (마에즈미) 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多遲摩母呂須玖 (타지마노모로쓰쿠)이다. 그 아들이 多遲摩斐泥 (타지마히네)이고, 또 그 아들이 多遲摩比那良岐 (타지마히나라키)이다. 그의 아들은 多遲摩毛理 (타지마모리), 그 다음이 多遲摩比多訶 (타지마히타카), 또 그 다음이 清日子이다 【三柱】. 이 清日子가 當摩之咩斐 (타지마노메히)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는 酢鹿之諸男 (쓰가노모로오), 그 다음으로 여동생인 菅竈上由良度美 (쓰가카마노유라토미)이다. 故로 위에서 말한 多遲摩比多訶가 그 질녀인 由良度美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는 葛城之高額比賣命 (카즈라기노타카히메노미코토)이다 【이는 息長帶比賣命 (神功皇后)의 母君】. III. 그런데 그 天之日矛이 가져온 물건은 玉津寶 (타마즈타카라)라고 하여, 珠二連과 浪振比礼・浪切比礼・風振比礼・風切比礼, 奥津鏡・辺津鏡 등, 합하여 8種이다 【이것은 伊豆志神社에서 섬기는 八坐의 大神이다】.)

『古事記』의 기사는 ⑤가 多遲摩毛理의 이야기로서 『日本書紀』의 ③④에 대응한다. 아메노히보코의 渡來는 ⑥에 서술되어 있다. 그 III에는 가져온 것에 대한 기술이 있고, 거울이 등장한다.

『播磨國風土記』에는 거울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메노히보코 전승이 각지에 남아 있다. 그 순서를 따라가 보면,

⑦揖保郡揖保里條

所以称粒者此里依於粒山。故因山為名粒丘。所以號粒丘者、天日槍命從韓國渡來、到於宇頭川底而乞宿處於葦原志舉乎命曰、汝為國主、欲得吾所宿之處。志舉即許海中。爾時客神以劍攪海水、而宿之。主神即畏客神之盛行、而先欲占國、巡上到於粒丘而食之。於此自口落粒、故號粒丘。其丘小石、皆能以粒。又以杖刺地、即從杖處。寒泉涌出、遂通南北、~~々~~寒南温。

(粒丘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마을이 粒山에 依據하고 있기 때문에 산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한다. 粒丘라고 부르는 이유는 天日槍命이 韓國으로부터 도래하여 宇頭川下流에 이르러 宿所를 葦原志舉乎命에게 청하며 말하기를 「너는 이 國의 主 (首長)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내가 머물만한 곳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다. 志舉는 海上에 있을 것을 허락하였다. 그때 客神은 劍을 가지고 海水를 저어 이곳에 머물렀다. 즉 主神은 客神의 왕성한 행위를 두려워하여 [客神보다도] 먼저 나라를 점령하려고 粒丘까지 올라와서 [급히] 식사하였다. 그러자 입에서 알갱이 [밥알갱이]가 떨어졌다. 그러므로 粒丘라고 부른다. 그 언덕의 작은 돌들은 모두 粒 [알갱이]와 닮아 있다. 또한 지팡이를 가지고 지면을 찌르면 그 지팡이가 있는 곳에서부터 차가운 샘물이 넘쳐나, 마침내 남북으로 통한다. 북쪽은 차갑고, 남쪽은 따뜻하다.)

다음 6例는 『播磨国風土記』宍禾郡條에 보인다.

⑧川音村

川音村。天日槍命宿於此村。勅云、川音甚高、故曰川音村。

(川音村. 天日槍命이 이 마을에 머물고, 勅하여 「川音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川音村이라고 한다.)

⑨奪谷

奪谷。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二神相奪此谷。故曰奪谷。以其相奪之由、形如曲葛。

(奪谷. 葦原志許乎命과 天日槍命 두 신이 이 계곡을 두고 서로 싸웠다. 그러므로 奪谷이라고 한다. 서로 싸움으로 인해 그 형태가 구부러진 칩덩굴과도 같다.)

⑩高家里

高家里【土下中】。所以名曰高家者。天日槍命告云、此村高勝於他村、故曰高家。

高家里【土는 下의 中이다】. 里名을 高家이라고 하는 이유는 天日槍가 말하길, 이 村은 높은 것에서 다른 村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高家라고 한다.

⑪伊奈加川

伊奈加川。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占國之時、有嘶馬、遇於此川。故曰伊故奈加川。

(伊奈加川. 葦原志許乎命이 天日槍命과 국토점거를 경쟁했을 때, 크게 우는 [이어나쿠] 馬이 있어, 이 강에서 만났으므로 伊奈加川라고 한다.)

⑫波加村

波加村。占國之時、天日槍命先到此處。伊和大神後到。於是大神大恠之云、非度先到之云、非度先到之乎。故曰波加村。到此處者、不洗手足必雨。

(波加村. 국토점거를 경쟁했을 때, 天日槍命이 먼저 이 곳에 오고, 伊和大神은 그 뒤에 이르렀다. 이에 大神은 크게 괴이하게 여겨 말하길 「뜻밖에 [하카라자루니] 먼저 와 있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波加村이라고 한다. 이 곳에 온 자가 손발을 씻지 않으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

⑬御方里

御方里【土下上】。所以號御形者、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到於黑土志爾嵩、各以黑葛三條着足之。爾時、葦原志許乎命之黑葛、一條落但馬氣多郡、一條落夜夫郡、一條落此村。故曰三條。天日槍命之黑葛、皆落於但馬國。故占但馬伊都志地而在之。一云、大神爲形見、植御杖於此村。故曰御形。

(御方里【土는 下의 上이다】. 御形라고 부르는 이유는 葦原志許乎命와 天日槍命이 黑土의 志爾嵩에 이르러, 서로 각각 黑葛(葦草)을 三條, 다리에 차고 던지기를 하였다. 그때 葦原志許乎命의 黑葛 一條는 但馬의 氣多郡에 떨어지고, 一條는 夜夫郡에 떨어졌으며, 一條(세번째)는 이 마을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三條(미카타)라고 한다. 天日槍命의 黑葛은 모두 但馬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但馬의 伊都志(이즈시·出

石)의 땅을 占하게 된다. 혹은 말하길 「大神이 神体 대신에 지팡이를 이 마을에 심었다. 그러므로 御形 (미카타)라고 한다.)

다음으로 神前郡條를 보면,

⑭ 梗岡里

梗岡者、伊和大神與天日杵命二神、各發軍相戰。爾時、大神之軍集而春稻之。其梗聚爲丘。又其簸置梗、云墓又云城牟禮山。一云、掘城處者、品太天皇御俗、參渡來百濟人等、隨有俗、造城居之。其孫等、川邊里三家人夜代等。

(梗岡는 伊和大神과 天日杵命 두 신이 각각 軍兵을 쫓하여 서로 싸웠다. 그때, 大神의 軍兵이 모여 나락을 찢었다. 그 쌀겨가 모여 언덕이 되었다. 또한 키로 걸른를 (장식한) 쌀겨를 墓라고 하고, 또는 城牟禮山이라고 한다. 혹은 말하길, 「城을 판 장소는 品太天皇 때에 도래한 백제인들이 [자신들의] 習俗에 따라 성을 만들어 살았다. 그 자손들은 강변 마을의 三家 (미야케・御宅)의 사람 夜代 등이다.)

⑮ 八千軍

所以云八千軍者、天日杵命軍在八千。故曰八千軍。

(八千軍이라고 하는 이유는 天日杵命의 軍兵이 팔천이었기 때문에 八千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筑前國風土記』가 있지만 현존하지 않고 佚文이 몇갠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여기에 게재한 것은 『新日本紀』卷10의 본문 「伊觀縣主祖五十跡手」에 붙여진 注에 인용되어 남아 있는 것이다 (⑩). 筑前國風土記曰、怡土郡。昔者穴戸豐浦宮御宇足仲彦天皇。將討球磨噲。幸筑紫之時。怡土縣主等祖五十跡手聞天皇幸拔取五百枝賢木。立于船舳。上枝挂八尺瓊中枝挂 白銅鏡下枝挂 十握釵。參迎穴門引嶋獻之。天皇勅問。阿誰人。五十跡手奏曰、高麗國意呂山自天降來日杵之苗裔五十跡手是也。天皇於斯譽五十跡手曰恪手【謂伊蘇志】五十跡手之本土可謂恪勤國。今謂怡土郡訛也。

(筑前國風土記에 이르기를, 怡土郡은 옛날, 穴戸豐浦宮에서 천하를 다스리신 足仲彦 (타라시나카츠히코) 天皇 (仲哀)이 球磨噲 (쿠마소)를 치려고 筑紫에 行幸하였을때, 怡土의 縣主 등의 祖인 五十跡手 (이토테)가 천황이 行幸하였음을 듣고, 五百枝의 賢木을 베어, 배의 舳艫에 세워, 위의 가지에는 八尺瓊 (야사카니)를, 중간쯤의 가지에는 白銅鏡 (마쓰미카가미)를, 밑의 가지에는 十握釵 (토즈카노츠루기)를 걸어, 穴門의 引嶋에서 맞이하고 헌상하였다. 천황이 勅問하여, 누구인가를 물었다. 五十跡手が 奏하기를 「高麗國 意呂山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日杵의 末裔인 五十跡手입니다」라고 하였다. 천황은 이에 五十跡手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恪 하도다(이소시이) (忠勤 하도다). 五十跡手의 本土를 恪勤國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怡土郡이라는 것은 그것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메노히보코가 헌상한 물건중에 거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지만, 무릇 아메노히보코의 도래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메노히보코는 「新羅王子」(①Ⅰ) 「新羅國主之子」(①Ⅱ) 「新羅王子」(②Ⅰ) 「新羅王子」(②Ⅱ) 「新羅國王之子」(⑥Ⅰ)의 自称・他称 표기된 바와 같이, 新羅의 왕자였다고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러나 일본에 오기 전, 자신의 나라를 물려 주었다는 「弟知古」도 포함하여, 남겨진 신라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왕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로 칭하고 일본에 온 예가 있지만, 이 경우, 엄밀히 생각할 필요

는 없을 것이다. 개별적 사실로 여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백제나 가야 남부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신라 전체 역사속에서도 관계가 양호했던 시기는 그다지 길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라인의 일본 渡來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국가간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민간교류는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가 안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아메노히보코 전승이 모두 허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라로부터의 渡來者集團을 상징적으로 서술한 것이라는 생각이 대세적이다. 현실의 渡來者集團이 있고, 그 도래와 정착의 상황을 아메노히보코에 의탁하여 서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신라왕자인 아메노히보코라는 인물이 일본에 왔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지만, 신라로부터 渡來者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이 배경이 되어 전승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확증은 없지만 대체로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지장없을 것이다.

자손인 타지마모리는 常世國을 왕래하는데 ③④⑤, 그 常世는 남방의 나라로 상정되고, 아메노히보코의 原郷도 신라가 아닌 남방의 나라였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常世國과 아메노히보코를 결부시킨 기술은 없다. 아메노히보코는 기술된대로 신라로부터 온 渡來者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아메노히보코가 어떠한 루트로 왔는 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세한 논의를 펼칠 여유는 없지만, ①II에서는 播磨國宍粟邑에 이르러, 宇治河를 거슬러 올라가 近江國 吾名邑에 들어가 잠시 살았으나, 近江으로부터 若狹國을 거쳐 但馬國에 이르러 정착했다고 한다. ①III에는 但馬國出石에서 妻를 맞이하고 그후 자자손손 계승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②II에서도 작은 배로 但馬에 와서 但馬에 머물러 살았다고 한다. 한편 ⑥II에 의하면, 妻인 阿加留比売를 쫓아 難波로 가려하였지만 해협에 막혀서 갈 수 없었고 但馬에 정착하여 그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播磨國風土記』에서는 아메노히보코의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葦原志許乎命와 국토쟁탈을 하고 있지만, ⑬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역시 但馬의 伊都志를 차지하고 있다. ⑮에는 筑前 怡土의 縣主들의 조상 五十跡手が 아메노히보코의 후예라고 하였으며, 아메노히보코가 반드시 怡土에 왔다고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있는 지명으로서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을 整合的으로 고찰해 보면, 신라로부터 바다를 건너 우선 筑前の 怡土에 들르고, 그곳에서 瀬戸內海를 통해 播磨에 도착해, 정착지를 둘러싼 분쟁을 거쳐 宇治川를 거슬러 올라 近江에 도착한다. 그곳에 잠시 머물른 후 若狹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但馬의 出石에 도달해 그곳에 정착한 것이 된다. 도래인이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승이 후대에 더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近江은 아메노히보코와 息長氏의 계보적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일찌기 息長氏의 본거지가 近江이었기 때문에 息長氏의 입장에서 아메노히보코가 잠시 머물렀다는 점을 전하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종적인 정착지에 대해서는 그 정착지가 但馬出石라는 점과 모순된 서술은 없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루트를 밟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전승 형성으로서는 아마도 단지 但馬에 도착했다는 전승이 근간이 되고 거기에 이야기가 덧붙여진 형태로 중간 경유지에 대한 전승이 생겨난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의 관심은 루트의 해명·진위가 아닌, 但馬出石으로의 도래·정착이 기본전승인 점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아메노히보코 전승지가 도래인 집단인 秦氏의 거주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메노히보코 전승에 秦氏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다. 秦氏는 신라계 또는 가야계의 도래인 집단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승지와 거주지가 대략 중복된다는 점 이외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播磨는 秦氏의 정착지 분포와 겹치는 곳이 많고, 더욱이 철 생산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메노히보코 혹은 그 집단의 정착지는 但馬로 播磨는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 但馬에는 아메노히보코를 섬기는 出石神社를 비롯하여 아메노히보코 혹은 그 일족을 섬기는神社가 많으나, 秦氏의 전승지와 겹치지도 않고 또한 제철과도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엄밀한 의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대체로 그러할 것이라라는 정도로 받아 들여지고 있지만, 이후 구체적인 자료를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전승에는 아메노히보코가 가져온 물건이 있고, 그 안에 거울이 포함되어 있다. ①I에는「日鏡一面」, ①II「日鏡」, ②I「日鏡一面」, ⑥III「奥津鏡・辺津鏡」등이 있다. ⑬은 아메노히보코가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후예인 五十跡手が「白銅鏡」을 賢木에 걸었다는 기술이 있다.

다른 보물과 조합하여 보면 샤먼의 소지품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메노히보코 집단으로서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거울 제작자 집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철생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증이 없는 상태이고, 거울 제작과의 관계를 전승 이외의 자료로 어디까지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그 이름에「호코(창)」가 있고 사용된 문자도「槍」「矛」「鉾」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鉄・銅 생산과 철제품・동제품의 제작기술을 가진 집단이 아닐까하는 상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검증은 향후의 과제이다.

①II에 보이는「近江国鏡村谷」은「鏡」字가 주목된다. 현재 滋賀県 竜王町 근처로 비정되지만, 그곳은 토기가마가 많고「陶人」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鏡」과 관련있을 만한 것은 없다.

이상, 도래인의 대표적인 존재이기도 한 아메노히보코 전승에 거울이 등장하는 점을 기초로 간단히 전승에 대해 언급하고싶다. 신라로부터의 渡来者集團은 반드시 실재했을 터이고, 그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메노히보코 전승으로서 상징적으로 이야기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실재의 도래인 집단인 秦氏와의 관련을 지적하는 점이 많지만, 구체적인 결부관계는 잘 알 수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철제기술과 관련된 집단이라는 추측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점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가져온 보물에 거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어떠한 상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고, 그 경우 신라로부터 거울이 전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예를 들면, 福岡의 香春神社는『豊前国風土記』에「新羅国の神」이 도래하였다는 鹿春의 神이祭神이고, 秦氏에 의해 제사되었던 銅産神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아메노히보코 전승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라로부터의 銅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秦氏 또는 秦氏와 관련된神社에는 그와 같은 전승이 보이고, 하나의 기술적 흐름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받아 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2. 七支刀와 七子鏡

아메노히보코 전승이 신라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것이라면, 백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七子鏡의 献上記事를 들 수 있다.

이는『日本書紀』神功皇后摂政 52년조에 보이는 다음 기사이다.
秋九月丁卯朔丙子、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則献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宝。

(秋9月丁卯朔丙子, 久氏 等 이 千熊長彦를 따라 왔다. 그리고 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및 種種의 重宝를 헌상하였다.)

이 기사는 오히려 「七枝刀」의 헌상기사로서 알려져 있다. 『古事記』에도, 亦百濟國主照古王、以牡馬壹疋・牝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阿直史等之祖】。亦貢上橫刀及大鏡。

(또 백제국주인 照古王이 牡馬 一匹과 牝馬 一匹을 阿知吉師에 託하여 貢上하였다 【이 阿知吉師라는 사람은 阿直史 등의 先祖이다】. 또 橫刀 및 大鏡을 貢上하였다.) 라고 하여 내용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여기에서 「大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어떠한 경위로 「献上」되게 되었는가는 『日本書紀』의 대응기사보다 앞선 神功紀 46~51年条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上記의 52年条 및 그 뒤에 이어지는 肖古王關連 기사도 들면, 다음과 같다.

四十六年春三月乙亥朔、遣斯摩宿祢于卓淳国。【斯摩宿祢者、不知何姓人也。】於是、卓淳王末錦早岐、告斯摩宿祢曰、甲子年七月中、百濟人久氏・弥州流・莫古三人、到於我土曰、百濟王、聞東方有日本貴国、而遣臣等、令朝其貴国。故求道路、以至于斯土。若能教臣等、令通道路、則我王必深德君王。時謂久氏等曰、本聞東有貴国。然未曾有通、不知其道。唯海遠浪嶮。則乘大船、僅可得通。若雖有路津、何以得達耶。於是、久氏等曰、然即当今不得通也。不若、更還之備船舶、而後通矣。仍曰、若有貴国使人來、必必告吾国。如此乃還。爰斯摩宿祢即以僭 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遣于百濟国、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仍以五色綵絹各一匹、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便復開寶藏、以示諸珍異曰、吾国多有是珍寶。欲貢貴国、不知道路。有志無從。然猶今付使者、尋貢獻耳。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志摩宿祢。便自卓淳還之也。

四十七年夏四月、百濟王使久氏・弥州流・莫古、令朝貢。時新羅国調使、與久氏共詣。於是、皇太后・太子訾田別尊、大歡喜之曰、先王所望国人、今來朝之。痛哉、不逮于天皇矣。群臣皆莫不流涕。仍檢校二国之貢物。於是、新羅貢物者、珍異甚多。百濟貢物者、少賤不良。便問久氏等曰、百濟貢物、不及新羅、奈之何。對曰、臣等失道、至沙比新羅。則新羅人捕臣等禁囹圄。經三月而欲殺。時久氏等、向天而呪詛之。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則奪我貢物、因以、為己国之貢物。以新羅賤物、相易為臣国之貢物。謂臣等曰、若誤此辭者、及于還日、当殺汝等。故久氏等恐怖而從耳。是以、僅得達于天朝。時皇太后・訾田別尊、責新羅使者、因以、祈天神曰、当遣誰人於百濟、將檢事之虛實。当遣誰人於新羅、將推問其罪。便天神誨之曰、令武内宿祢行議。因以千熊長彦為使者、当如所願。【千熊長彦者、分明不知其姓人。一云、武藏国人。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百濟記云職麻那々加比跪者、蓋是歟也。】於是、遣千熊長彦于新羅、責以濫百濟之獻物。

四十九年春三月、以荒田別・鹿我別為將軍。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至卓淳国、將襲新羅。時或曰、兵衆少之、不可破新羅。更復、奉上沙白・蓋盧、請增軍士。即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但木羅斤資者、百濟將也。】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俱集于卓淳、擊新羅而破之。因以、平定比自■(火+本)・南加羅・喙国・安羅・多羅・卓淳・加羅、七国。仍移兵、西廻至古奚津、屠南蛮忧弥多礼、以賜百濟。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時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邑、自然降服。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相見欣感。厚礼送遣之。唯千熊長彦與百濟王、至于百濟国、登辟支山

盟之。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時百濟王盟之曰、若敷草為坐、恐見火燒。且取木為坐、恐為水流。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是以、自今以後、千秋萬歲、無絕無窮。常稱西藩、春秋朝貢。則將千熊長彦、至都下厚加禮遇。亦副久氐等而送之。

五十年春二月、荒田別等還之。

夏五月、千熊長彦・久氐等、至自百濟。於是、皇太后歛之間久氐曰、海西諸韓、既賜汝國。今何事以頻復來也。久氐等奏曰、天朝鴻沢、遠及弊邑。吾王歛喜踊躍、不任于心。故因還使、以致至誠。雖逮萬世、何年非朝。皇太后勅云、善哉汝言。是朕懷也。增賜多沙城、為往還路駅。

五十一年春三月、百濟王亦遣久氐朝貢。於是、皇太后語太子及武內宿祢曰、朕所交親百濟國者、是天所致。非由人故。玩好珍物、先所未有。不闕歲時、常來貢獻。朕省此款、每用喜焉。如朕存時、敦加恩惠。

即年、以千熊長彦、副久氐等遣百濟國。因以、垂大恩曰、朕從神所驗、始開道路。平定海西、以賜百濟。今復厚結好、永寵賞之。是時、百濟王父子、並顙致地、啓曰、貴國鴻恩、重於天地。何日何時、敢有忘哉。聖王在上、明如日月。今臣在下、固如山岳。永為西藩、終無貳心。

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寶。仍啓曰、臣國以西有水。源出自谷那鐵山。其邈七日行之不及。當飲是水、便取是山鉄、以永奉聖朝。乃謂孫枕流王曰、今我所通、海東貴國、是天所啓。是以、垂天恩、割海西而賜我。由是、國基永固。汝當善脩和好、聚斂土物、奉貢不絕、雖死何恨。自是後、每年相統朝貢焉。

五十五年是歲、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是歲、百濟王子貴須立為王。

이 46년~52년조는 일련기사로서 백제의 왜에 대한 「조공」의 기원을 서술한 부분이다. 상당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6년 3월, 斯麻宿禰를 탁순국에 파견하였다. 탁순왕이 斯麻宿禰에게 말하길, 「甲子年 七月에 백제의 久氐 등 3인이 와서 왜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아직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자, 만일 왜의 사자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斯麻宿禰는 從者(爾波移)와 卓淳人(過古)을 백제로 파견하였다. 백제의 肖古王은 기뻐하며 후하게 대우하였다. 종자는 탁순에 돌아가 志摩宿禰에게 전하고 함께 귀국하였다.

47년 4월, 백제왕은 구저 등 3인을 파견하여 조공해 왔다. 신라의 조공사도 함께 왔다. 두 나라의 공물을 조사한즉, 신라쪽은 진귀한 것이 많고 백제쪽은 좋지 않았다. 구저 등을 다그치자, 길을 해매 신라에 이르러 공물을 바꿔치기 당했다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황태후는 신라 사자를 꾸짖고, 天神에게 누구를 신라로 파견해 죄를 물어야 할지 물었다. 天神은 千熊長彦【千熊長彦은 그 성을 잘 알 수 없다. 『百濟記』의

「職麻那那加比跪」라고 하는 이가 이사람일까】가 좋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千熊長彦을 신라에 파견하여 죄를 물었다.

49년 (a) 춘삼월, 荒田別・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백제사자인 구저 등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b)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길, 「兵衆이 적으면 신라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다시 沙白盖盧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주도록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다. (c) 그러므로 木羅斤資・沙沙奴跪【이 두사람은 성을 알 수 없다. 다만 木羅斤資만이 백제의 장수이다】에게 명하여 精兵을 거느리고 沙白盖盧와 함께 파견했다. 함께 탁순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였다. (d) 그 결과, 比自■(火+本)・南加羅・喙国・安羅・多羅・卓淳・加羅 등 7국을 평정하였다. (e) 그리고 병사를 서쪽으로 옮겨 古奚津에 이르러 南蛮의 忱弥多礼를 공취하여 백제에게 사여하였다. (f) 이에 백제왕 초고 및 왕자 귀수가 또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만났다. (g) 마침 그때 比利・辟中・布弥支・半古의 四邑 (또는 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의 [五]邑) 이 스스로 항복해 왔다. (h) 그러므로 백제왕 부자 및 荒田別・木羅斤資 등이 함께 意流村에서 만나 서로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해 보냈다. (i) 다만 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회맹하였다. 또 古沙山에 올라가 반석위에서 백제왕이 맹세하며 말하길 「.....반석위에서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천추만세 끊이지 않고 항상 西蕃이라 칭하며 춘추로 조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j) 그리고 千熊長彦을 거느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히 예우하고, 또 구저 등을 붙여 돌려 보냈다.

50년 2월, 荒田別 등이 귀국했다. 5월에 千熊長彦・구저 등이 왔다. 황태후가 어째서 자주 오는 지 묻자, 구저 등은 우리왕이 기뻐하며 지극한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多沙城을 더 주었다.

51년 3월, 백제왕이 또 구저를 파견하였다. 千熊長彦으로 하여금 구저를 배웅케했다. 백제왕 부자는 이마를 땅에 대고 영구히 西蕃이 되어 두 마음이 없을 것임을 맹세하였다.

52년 9월, 구저 등이 千熊長彦을 따라 와서 七枝刀・七子鏡 및 重宝를 헌상하였다.

이 이후로 매년 조공해 왔다.

神功紀 46년은 『日本書紀』기년에서 말하면, 서력 236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메이지 이래 기년논쟁을 거쳐, 신공기의 기사는 그 연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干支2廻 (60년×2), 즉 120년을 내려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神功攝政 55년에 초고왕이 봉어했다고 하는데 그 해는 『日本書紀』의 입장에서는 255년이 된다. 그러나 『三國史記』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근초고왕의 死는 375년이고 거기에는 120년의 차이가 있다.

위의 신공기 기사에서는 註에 「百濟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日本書紀』전체로서는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를 인용한 기사가 적지 않다. 이들을 백제삼서라고 칭하지만, 이들은 백제멸망후 백제인들이 본국에서 가져온 각각의 가계와 왕계 등을 기초로, 倭에 망명해 와 새롭게 왜의 천황을 섬김에 있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가계가 천황가에 봉사하여 왔는가를 虛實을 섞어 기술하여 제출한 것이고,

『日本書紀』편찬때에 특히 기년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처럼 「百濟記」를 이용하면서 근초고왕의 연대와 딱 12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는 『日本書紀』의 편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본래 있던 연대로부터 120년전 과거의 사건으로서 기술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지금 신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반대로 120년을 내려, 즉 원래의 기년으로 되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이 신공기 46년~52년의 기사는 이처럼 수정하여 366년에서 372년의 일을 기술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전부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점은 49년조에 집중해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상세히 언급할 여유는 없지만, 49년조에 木羅斤資가 등장하고 있고 그 木羅斤資가 『日本書紀』에서는 이곳 외에 2회 더 등장한다. 木羅斤資 관련기사는 결론적으로 60년을 더 내려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49년조는 木羅斤資가 보이는 기사(c)와(h), 및 (c)와 이어지며 게다가 「沙白盖盧」라는 『百濟記』의 표기일듯한 인명을 포함한(b)가 본래 429년의 일이었다. (c)와 (h)의 사이에 있는(d)(e)(g)도 여하튼 그에 준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荒田別・鹿我別」이 보이는(a)와 「백제왕 추고 및 왕자 귀수」가 보이는(f), 「千熊長彦」이 보이는(i)(j)가 남지만 이 부분은 앞의 것들과 떨어뜨려 생각해 보도록하자. 본래 369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불문하고 다른 것들과 함께 시대를 내려서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고를 근간으로 정리해 보면, 신공기 49년조중 전후 기사와 연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49년 3월, 荒田別・鹿我別을 장군으로 하여 백제 使者인 久氐 등과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여기에 백제왕 추고와 왕자 귀수가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회맹하였다. 또 古沙山에 올라가 백제왕이 맹세하며 말하길, 「千秋万歲 끊이지 않고 항상 西蕃으로 칭하며 춘추로 조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千熊長彦을 거느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히 예우하고 또 久氐 등을 딸려 보냈다.

이로써 전후 문제없이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전체를 통해 백제왕이 왜왕에 복속되어 조공해 오게 된 기원을 기록한 기사이다. 대체로 『百濟記』를 기초로 한 기사를 핵으로 하고 있음이 상정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古典文学大系の 『日本書紀』의 두주에도 「百濟記를 사료로 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필치로 문장을 구성한 것. 다만 50년조・51년조 등은 전체적으로 書紀의 述作으로 보이는데 47년조도 그러한가」라고 있는 것처럼, 『日本書紀』의 조작이 많은 것도 옛부터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기 게재된 50년조・51년조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조작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를 보면, 『日本書紀』가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는지가 명백해 진다. 왜는 이 당시부터 백제가 거듭 조공사를 보내오고 西蕃이라 칭하며 영구히 조공할 것을 맹세한 상대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기위해서 그 이외에도 조작이 행해지고 있는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46년조는 왜에서 탁순으로의 사자파견과 그 사자가 從者 「爾波移」를 탁순에서 백제로 파견했음을(卓淳人「過古」에 수반하여) 전한다. 탁순왕과 왜 사자와의 문답 등은 조작이 많지만, 백제에 왜인이 탁순인과 함께 왔다는 사건은 『百濟記』에 전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46년조 탁순왕의 말 속에 보이는 「甲子年」은 364년 일 것이다. 이 해 백제사자가 탁순에 왔다는 것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탁순왕이 왜의 사자에게 고하는 형태로 『百濟記』에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 해 백제가 탁순에 사자를 보냈다」와 같은 형태였을 것이다.

(3) 47년조는 백제로부터 구저 등 3인 (이외에 弥州流・莫古) 이 파견되고 있음을 전한다. 이 인명이 『百濟記』에 의한 것임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다만 구저 등은 명확히 조작된 사료로 여겨지는 50년조・51년조를 포함해 전후 4회 (마지막은 52년조), 왜에 사자로서 오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古典文学大系의 두주에는 47년조도 조작으로 생각하고 있고, 필자도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구저 등의 파견 사실이 1회뿐이라면, 이렇게까지 구저 등에 구애되어 조작하는 것은 집요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필자는 구저 등이 온 것은 47년과 52년의 2회였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4) 「職麻那那加比跪」가 『百濟記』에 보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을까? 49년조에 「千熊長彦」이 등장한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백제왕과 회맹하는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나 언제 파견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찾아보면 47년조에 신라에 파견되었다고 보일 뿐이고, 기사에 보이는 한에서는 그 뒤 백제로 향한 것이 될 것이다. 47년조의 신라파견은 조작이고 백제로 직접 파견했다는 것이 본래의 형태지 않았을까. 다만 그 繫年이 마음에 걸린다. 繫年은 별도로 하면, 『百濟記』에는 본래 「職麻那那加比跪」가 백제에 와서 백제왕과 회맹하고 백제왕은 구저 등을 딸려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그러면 「職麻那那加比跪」가 구저 등과 함께 왜로 돌아 온 것은 언제일까. 50년조・51년조가 조작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52년 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52년조의 繫年에도 조작을 상정코자 한다. 52년조는 일반적으로 『百濟記』에 기초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百濟記』에는 본래 49년조와 같은 해에 연건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日本書紀』는 49년조에 대해서는 木羅斤資의 기사를 ㄸ집어 들어 加羅七国平定記事 등을 조작하고, 또 50년조・51년조를 조작했기 때문에 52년조를 3년정도 내려서 繫年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된다.

만일 본래 『百濟記』에 있었다고 한다면, 干支紀年이어서 52년조의 繫年은 움직이기 어려운 사실처럼 이해되고 있지만, 『日本書紀』의 조작에 있어 간지의 繫年만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근거로 『百濟記』에 적여져 있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64년 백제가 탁순에 사자를 파견했다.

366년 백제에 왜인 (斯麻宿禰의 종자 爾波移) 이 탁순인 (過古) 과 함께 왔다.

367년 백제가 왜에 구저 등을 파견하였다.

이후, 왜가 職麻那那加比跪를 백제로 파견해 왔다.

369년 백제왕 근초고왕이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게다가 구저 등을 딸려 보냈다.

구저 등은 七枝刀・七子鏡 등을 기념으로서 가져왔다.

백제사자는 탁순까지 『魏志』 왜인전에 보이는 대방군으로부터의 행로와 같이, 연안항로를 따라 배로 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탁순은 해안가인 창원지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기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것처럼 백제와 탁순의 통교가 성립한 뒤에 탁순이 중개하는 형태로 왜와 백제의 통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극히 상징적인 것이고,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백제와 가야남부의 관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 왜와 가야남부의 관계가 있으며, 가야남부가 중개하는 형태로 백제와 왜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일 것이다.

이상, 설명이 길고 번잡하게 되었지만, 필자는 백제가 369년에 七支刀와 七子鏡을 왜로 보냈다 (다만 가져온 사자가 도착한 것이 370년이라해도 좋다) 고 생각한다. 그 배경에는 가야남부를 매개로한 백제와 왜의 우호관계성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七子鏡은 樋口隆康「百濟武寧王陵と七子鏡」(史林55-4)에 의하면, 七子란 七乳로서 7개의 乳가 있는 거울을 가르킨다고 하여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獸帶鏡이 바로 그러한 7개의 乳가 있기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한다. 무녕왕 시대는 369년 보다는 백수십년 뒤이지만, 백제에 그러한 거울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 될까? 다만 무녕왕릉출토 거울은 南朝로부터의 舶載品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七子鏡도 舶載品이라고 한다면, 東晉과의 정치적 관계는 372년 이후부터이기에 연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실은 七支刀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동진의 연호「泰和(太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은 백제로 유입한 중국계인물의 존재를 상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七子鏡은 거울 자체의 직접전래를 상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七支刀와 같이 생각할 수 없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싶고, 여기에서는 여하튼 백제에서 왜로 거울이 재래된 사실에 주목해 두고 싶다.

3. 『入唐求法巡礼行記』에 보이는「捨鏡」

円仁의 일기인『입당구법순례행기』大中元年(847)9월8일조에,
八日、聞惡消息、異常驚怕。無風、發不得。船衆捨鏡等祭神求風。僧等燒香、為當島土地及大人小人神等念誦、祈願平等得到本國、即在彼處為此土地又大人小人神等、轉金剛經百卷。至五更、雖無風、而發去。纔出浦口、西風忽至、便上帆向東行、似有神理相扶。從山島裏行、南北兩面、山島重重而參然。日欲已時、到雁島暫歇、是新羅南界、內家放馬之山。近東有?龍寺莊、往往有人家二三所。向西南望見耽羅島。午後、風信更好、發船從山島裏行、到新羅國東南、出到大海、望東南行。

(8일, 나쁜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없었다. 선원들은 거울 등을 흩捨하여 신에게 제사지내고 바람을 구했다. 승려들은 향을 피워 當島의 토지 및 大人 小人 神을 위해 念誦하며, 모두 본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였다. 즉 彼處에 있으면서 이 土地 및 大人 小人 神을 위해 金剛經百卷을 轉讀하였다. 五更이 되자 비록 바람이 없었지만 출발하였다. 겨우 포구를 나오자, 서풍이 홀연히 불어 왔다. 곧바로 帆을 올려 동쪽으로 향하였다. 神理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 山島의 안쪽을 따라 가니, 남북양면으로 山島가 겹쳐져 있고 泰然스럽다. 巳時가 될 무렵, 雁島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이곳이 신라의 南界로, 宮廷에서 말을 방목하고 있는 산이다. 동쪽 가까이에는 ?龍寺의 莊園이 있다. 때때로 人家가 두세곳이 있다. 서남쪽으로 향하면 耽羅島를 바라볼 수 있다. 오후에는 風信이 더욱 나아져 배를 띄어 山島 안쪽을 따라 가고, 신라국 동남쪽에 이르러 大海로 나와 동남쪽을 바라보며 갔다.) 라고 하여, 배에서 바람을 기다릴 때, 船衆이 신에게 기도하여 바람을 요구하였다. 그때「捨鏡等」라는 것이 행해졌다. 이 배는 6월 27일조에「船主 王可昌의 배를 고용하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王可昌의 배로

왕가창은 6월 18일조에 보이는 바와같이 「楚州 新羅坊」의 인물이다. 円仁이 여행한 여러 곳에서 신라인과 그 네트워크에 큰 조력을 얻었던 일은 잘 알려져 있고 일기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귀국할 때의 배도 신라인의 배를 고용하여 돌아 왔던 것이다. 그 후, 9월 17일에 博多 서남쪽 能拳島에 도착하여 무사히 귀국하게 되는데, 10월 6일조에 「船上의 44인에게 겨울 옷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였다. 『続日本後紀』卷 17・承和14年(847) 10月甲午条에, 遣唐天台請益僧円仁及弟子二人・唐人四十二人、到自大唐。라고 하여 「唐人 42人」으로 하고 있으나, 이 시기의 기록에서는 신라인을唐人이라고 부르거나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도 많은 선원들은 신라인이었다고 생각된다.

「捨鏡」은 小野勝年에 의하면 「寄捨」「寄進」이라고 한다. 뱃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다. 『行記』開成4年(839) 5月2日条에도, 西時、風停。任流到海口停留。道令汲水。日没之時、於船上、祭天神地祇。亦官私絹・纈・鏡等奉上於船上住吉大神。

(西時에 바람이 멈췄다. 흐름을 따라서 海口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물을 길러오게 했다. 해가 질때 선상에서 天神地祇를 제사지냈다. 또 官私의 絹・纈・鏡 등을 선상의 住吉大神에 바치며 제사지냈다.) 라고 한다. 이는 견당사 일행의 귀국선인데, 본디 견당사선은 도착하였어도 오는 길에 손상이 심해 신라통역인 金正南을 통해 귀국을 위한 배를 구하고 있다.

『行記』開成4年閏正月4日条에,
依金正〔南〕寄請、爲令修理所買船、令都匠・番匠・船工・鍛工等卅六人、向楚州去。

(金正〔南〕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배를 수리시키기위해 都匠・番匠・船工・鍛工 등 36인을 楚州로 향하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신라선이었음은 『続日本後紀』承和6年(839) 8月己巳条에, 知入唐三箇船、嫌本舶之不完、倩駕楚州新羅船九隻、傍新羅南以歸朝。

(唐에 들어간 3개의 배가 本舶이 완전하지 않음을 꺼려, 楚州의 신라선 9척을 고용하여 신라 남쪽을 따라 歸朝하였음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바와 같다. 『行記』開成4年4月24日条에도, 便聞本国朝貢使駕新羅船五隻、流着萊州廬山之邊。

(듣기로는 본국의 조공사가 탄 신라선 5척은 萊州의 廬山 근처에 流着했다고 한다.) 라고 하여 확인할 수 있다.

『行記』同年3月 17日条에는,
運隨身物、載第二船、與長判官同船。其九隻船、分配官人。各令船頭押領。押領本国水手之外、更雇新羅人諳海路者六十餘人。每船或七或六或五人。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을 第二船에 옮겨 싣고, 長判官과 同船하였다. 그 9척의 배에는 관인을 분배하고 각각 船頭로 삼았다. 본국의 水手를 지휘하는 외, 더욱이 신라인으로 해로를 잘 알고 있는 자 60여명을 고용하였다. 배마다 혹은 7인, 혹은 6인, 혹은 5인이었다.) 라고 하여, 신라인으로 「海路을 외우고 있는 자 60여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水手와 梢功으로서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同3月 25日条에는, 緣第一船新羅水手及梢功下船未來、諸船爲此拘留、不得進發。

(第一船의 신라 水手 및 梢功이 배를 내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諸船이 그 때문에 구류되어 출발할 수 없었다.) 라고 하고, 同4月 1日条에도 「新羅水手」가 보이며, 항로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배이고, 乘員의 대다수가 신라인이었다고 생각되지만, 船上 住吉大神에 제사를 지내며, 바람을 구하고 있는 것은 특히 기도하는 신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특히 집착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한다. 또한 이는 신라만의 풍습이 아니라 당시 항해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풍습이라고 해야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紀貫之의 『土佐日記』에는 거센 바다를 가라앉히려고, 키잡이가 거울을 바다에 던져 넣는 일화가 있다 (2월5일조). 역시 住吉明神에 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패턴이 많은 것 같은데, 바람을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기도하고 있으나, 항해의 편리를 기도하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중국의 예도 포함하여 더욱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三国史記』 『三国遺事』에 보이는 鏡傳承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거울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다. 겨우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을 정도이다. 우선 『三国史記』 卷48에 薛氏女傳이 있다.

薛氏女. 栗里民家女子也。雖寒門單族、而顏色端正、志行脩整。見者無不歆艷、而不敢犯。眞平王時、其父季老、番當防秋於正谷。女以父衰病、不忍遠別。又恨女身不得待行、徒自愁悶。沙梁部少季嘉實雖貧且窶、而其養志貞男子也。嘗悅美薛氏而不敢言。聞薛氏憂父老而從軍、遂請薛氏曰、僕雖一懦夫、而嘗以志氣自許。願以不肖之身、代嚴君之役。薛氏甚喜、入告於父。父引見曰、聞公欲代老人之行、不勝喜懼、思所以報之。若公不以愚陋見棄、願薦幼女子以奉箕箒。嘉實再拜曰、非敢望也、是所願焉。於是嘉實退而請期。薛氏曰、婚姻人之大倫、不可以倉猝。妾既以心許、有死無易。願君赴防交代而歸、然後卜日成禮未晚也。乃取鏡分半、各執一片云、此所以爲信、後日當合之。嘉實有一馬。謂薛氏曰、此天下良馬。後必有用。今我徒行。無人爲養。請留之以爲用耳。遂辭而行。會國有故、不使人交代、淹六季未還。父謂女曰、始以三季爲期、今既踰矣。可歸于他族。薛氏曰、向以安親故強與嘉實約。嘉實信之、故從軍、累季飢寒辛。若况迫賊境、手不釋兵、如近虎口、恒恐見啗。而弃信食言、豈人情乎。終不敢從父之命。請無復言。其父老且耄、以其女壯而無伉儷、欲強嫁之、潛約婚於里人、既定日引其人。薛氏固拒、密圖遁去而未果。至廐、見嘉實所留馬、大息流淚。於是嘉實代來。形骸枯槁衣裳藍縷、室人不知謂爲別人。嘉實直前、以破鏡投之。薛氏得之呼泣。父反(及)室人失(大)喜、遂約異日相會與之偕老。

(薛氏女. 栗里 민가의 처자이다. 비록 신분은 낮은 일족의 출신이여도 용모는 단정하고 마음가짐과 행동은 옳았다. 보는 이로 그 아름다움을 탐하고 부러워하지 않아 이가 없었으나 감히 범할 수 없었다. 진평왕 때 (576~632)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으나 正谷에서 辺境防備의 당번을 맞게되었다. 딸은 아버지가 쇠약하고 병약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게다가 여자의 몸으로 함께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한스러워해 단지 자신이 근심할 뿐이었다. 그때, 沙梁部 少年 嘉實은 가난하고 여위어 있지만, 뜻을 키운 정절 있는 남자였다. 일찌기 薛氏의 아름다움을 좋아하였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했다. 薛氏의 아버지가 늙어 중군하게 됨을 걱정하고 있다고 듣고, 마침내 薛氏에 말하기를, 「나는 비록 겁쟁이고 약한 남자이지만, 항상 뜻을 높게 가지고 있음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불초의 몸입니다만, 嚴君의 병역을 대신코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薛氏는 무척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가 인견하며 말하기를 「공이 이 노인

을 대신하여 병역을 하려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척 기쁜 일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그것에 보답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일 공이 어리석고 속이 좁다고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어린 딸을 청소하는 하녀로서(妻로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嘉實은 再拜하며 말하길 「감히 무리하게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嘉實은 물러나와 결혼시기를 정하려고 하였다. 薛氏가 말하길 「혼인은 사람의 大倫입니다. 황급히 해서는 안 됩니다. 훗은 이미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죽는 일이 있을 지언정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방비하러 가서 교대하여 돌아온 이후에 날을 점차 혼례를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거울을 꺼내어 반쪽으로 잘라 각각 한쪽씩을 들고 말하기를, 「이것을 신표로 삼아 후일 이것을 맞춰봅시다。」라고 하였다. 嘉實에게는 한 필의 말이 있었다. 薛氏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천하의 良馬입니다. 후일 반드시 유용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걸어서 가기때문에 사육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써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별을 고하고 갔다. 마침 나라에 어떤 일이 있어 방비의 병사를 교대할 수 없어 육년이 지나도 돌아 올 수 없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기를, 「처음에는 3년을 기한으로 했다. 지금은 이미 지나버렸다.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薛氏가 말하기를 「부모를 안심시키고자 무리하게 가실과 약속하였습니다. 가실은 그것을 믿고 그때문에 종군하였고, 累年 飢寒에 견디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적지로 가서 손에서 무기를 떼어놓지 않고 호랑이 입 근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먹힐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를 버리고 식언하는 것은 과연 인간의 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명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두번 다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아버지는 늙고 노쇠하여 그 딸이 壯年이 되어도 반려가 없으므로 억지로 시집보내려고 몰래 里人과 혼인약속을 하여 날을 이미 정해 그 사람을 들이려 하였다. 薛氏는 완고하게 거부하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마구간에 이르러 嘉實이 남기고 간 말을 보며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嘉實이 교대하고 돌아왔다. 형상은 아위어 뼈만있고 옷은 남루하여 家人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嘉實은 앞으로 나아가 깨진 거울을 던졌다. 薛氏는 그것을 들고 크게 울었다. 아버지와 家人들도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해 서로 만나 해로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21・慶尚道・慶州府・烈女條에 「薛氏」를 게재하고 있으나, 『三國史記』의 열전에 의거해 그것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거울을 부절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풍습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민의 딸이라도 신변에 거울을 두고 있다는 것, 즉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다.

다음으로 卷50・弓裔傳 에,

先是有商客王昌瑾、自唐來寓鐵圓市廛。至貞明四季戊寅、於市中見一人狀貌魁偉、鬢髮盡白、着古衣冠、左手持甕、右手持古鏡。謂昌瑾曰、能買我鏡乎。昌瑾即以米換之。其人以米俵街巷乞兒、而後不知去處。昌瑾懸其鏡於壁上、日映鏡面、有細字書。讀之若古詩。其畧曰、上帝降子於辰馬、先操鷄後搏鴨。於巳年中二龍見。一則藏身青木中。一則顯形黑金東。昌瑾初不知有文。及見之謂非常、遂告于王。王命有司與昌瑾物色求其鏡主、不見。唯於勃瀾寺佛堂、有鎮星塑像、如其人焉。王嘆異、久之命文人宋含弘・白卓・許原等解之。含弘等相謂曰、上帝降子於辰馬者、謂辰韓馬韓也。二龍見一藏身青木一顯形黑金者、青木松也。松岳郡人、以龍爲名者之孫、今波珍飡侍中之謂歟。黑金是也。今所都是圓之謂也。今主上初興於此、終滅於此之驗也。先操鷄後搏鴨者、波珍飡侍中先得鷄林後收鴨綠之意也。宋含弘等相謂曰、今主上虐亂如此。吾輩若以實言、不獨吾輩爲菹

醢、波珍淪亦必遭害。迺飾辭告之。

(이에 앞서, 상인 王昌瑾이 唐에서 와서 철원의 시전에 寓居하였다. 貞明 四年 戊寅 (918) 에 市中에 몸이 크고 모발이 모두 흰 사람이 나타났는데 옛날 衣冠을 몸에 두르고 왼손에는 磁器 사발을 들고, 오른손에는 古鏡을 가지고 와서 昌瑾에게 말하기를, 「내 거울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므로, 昌瑾은 쌀로 바꾸었다. 그 사람은 쌀을 거리의 거지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였다. 昌瑾이 그 거울을 벽위에 걸었는데, 日光이 거울면에 비치매 작은 글자가 나타났다. 그것을 읽어보니 古詩와 같은 것으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上帝가 아들을 辰馬에 내려보내니,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때린다. 巳年中에는 두 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몸을 푸른 나무 속에 감추고, 하나는 형상을 黑金東에 나타냈도다」. 昌瑾이 처음에는 文章이 있는 줄을 몰랐다가 이것을 보고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고, 드디어 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有司에게 명하여 昌瑾과 함께 그 거울의 주인을 찾게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다만 勃颯寺 仏堂에 鎮星 (土星) 塑像이 있어 그 사람과 같았다. 왕은 오랫동안 탄식하다가 文人 宋含弘・白卓・許原 등에게 명하여 해석하게 하였다. 含弘 등이 서로 말하기를, 「上帝가 아들을 辰馬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辰韓・馬韓을 말함이요 「二龍이 나타나 하나는 몸을 靑木에 감추고 하나는 형상을 黑金에 나타냈다」고 하는데, 靑木은 소나무이니 松岳郡人으로서 龍을 이름으로 한 이의 손자, 지금 波珍淪・侍中을 말함인가? 黑金은 철이니, 지금의 도읍인 鉄門을 말함이다. 지금 主上이 여기에서 일어나, 마지막은 여기서 멸망한다는 前兆이다. 「먼저 닭을 잡고 나중에 오리를 친다」라는 것은 波珍淪・侍中이 먼저 계림을 얻고, 나중에 압록강을 얻는다는 의미다라고 하였다. 宋含弘 등이 서로 말하기를 「지금 主上이 暴虐하고 亂行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다. 우리들이 사실을 고한다면 우리들만이 짓갈이 될 뿐 아니라, 波珍淪도 또한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이 말을 꾸며서 고하였다.)

이것은 日光鏡과 같은 것이라고 상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三國遺事』卷2・興德王鸚鵡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第四十二興德大王寶曆二年丙午 (826) 即位未幾有人奉使於唐將鸚鵡一雙而至不久雌死而孤雄哀鳴不已王使人掛鏡於前鳥見鏡中影擬其得偶乃喙其鏡而知其影乃哀鳴而死王作歌云未詳

(제42 흥덕대왕은 寶曆 二年 丙午 (826) 에 즉위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사자로서 入唐했던 사람이 鸚鵡 한쌍을 가지고 돌아 왔다. 얼마 안 있어 암컷이 죽자 홀로 남은 수컷이 슬피 울며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은 사람에게 명하여 거울을 앞에 걸어 놓게하였다. 새는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짝을 얻을 줄로 생각하여 그 거울을 부리로 찍어 그림자임을 알게되자 다시 슬피울며 죽었다. 왕은 이 일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나 잘 알 수 없다.)

鸚鵡와 鏡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唐에도 있는데 그 영향일까? 더우기 鸚鵡는 唐의 경우, 林邑 등 남방으로부터 현상되고 있는 기사가 있고, 신라에서 일본으로도 자주 전래되고 있다. (大化3年、天武14年、天平4年)。

『三國史記』 『三國遺事』의 거울을 둘러싼 에피소드로서는 이정도로, 특히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추가할 수 있는 재료는 더이상 없다.

결론

이상, 거울을 둘러싼 전승사료를 기초로, 한일관계에 대해 살필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아메노히보코 전승에 나타나는 보물로서의 거울과 백제로부터 헌상된 七子鏡은 新羅·百濟로부터 거울이 전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新羅·百濟에 특별히 거울이 많은 것은 아니고, 『三國史記』 『三國遺事』를 검색해도 거울에 관한 에피소드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2, 3례가 전부이다. 이는 또한 新羅·百濟에서도 거울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오히려 희박했다는 생각과 상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新羅·百濟로부터 倭로라는 거울의 흐름이 시사하는 점이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新羅·百濟로부터 거울이 전래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예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만큼 전승적으로 보내진 물건으로서 거울이 명시되고 있는 점은 흥미깊다.

鏡をめぐる古代の日韓

田中俊明（滋賀県立大学）

鏡に関する記録を通して、古代の日韓関係に言及できることがないかを考えたい。ただし、現実には、韓国古代の記録において、鏡についてふれているものは、ほとんどない、と言ってよい。日本に比べて、韓国における鏡の出土が極めて少ないが、そのことも関わりがあると思われる。そもそも韓国では、鏡に関する関心が稀薄ではないかと想像されるのである。ここでは、そ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鏡に関するいくつかの記録をとりあげ、そこから考えることのできる点について述べてみたい。

1 アメノヒボコ伝承

新羅の王子とされるアメノヒボコ（『日本書紀』では「天日槍」、『古事記』では「天之日矛」と表記する。『風土記』の一部は「天日杵」とする）が、日本に渡来し、鏡を将来する。また、伝承地のひとつとして、「鏡村」がある。

アメノヒボコ伝承は、『日本書紀』では垂仁紀に①3年条②88年条③90年条④99年条と4箇所、『古事記』では⑤垂仁段⑥応神段と2箇所、さらに『播磨国風土記』では⑦揖保郡⑧～⑬宍粟郡6箇所⑭⑮神崎郡2箇所など9箇所にみられる。それと、『筑前国風土記』（佚文）⑯である。

このうち鏡に関わるのは①②⑥⑯のみであるが、伝承全体について考える必要があるため、すべての史料を掲げることにする。

まず①『日本書紀』垂仁紀3年条であるが、便宜上、Ⅰ～Ⅲに分けて示す。【】内は分註である。

Ⅰ. 三年春三月、新羅王子天日槍来帰焉。将来物、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鵜鹿々赤石玉一箇・出石小刀一口・出石杵一枝・日鏡一面・熊神籬一具、并七物。則蔵于但馬国、常為神物也。【Ⅱ. 一云、初天日槍、乗艇泊于播磨国、在於宍粟邑。時天皇遣三輪君祖大友主与倭直祖長尾市於播磨、而問天日槍曰、汝也誰人、且何国人也。天日槍対曰、僕新羅国主之子也。然聞日本国有聖皇、則以己国授弟知古而化帰之。仍貢獻物、葉細珠・足高珠・鵜鹿々赤石珠・出石刀子・出石槍・日鏡・熊神籬・胆狭浅大刀、并八物。仍詔天日槍曰、播磨国宍粟邑・淡路島出浅邑、是二邑、汝任意居之。時天日槍啓之曰、臣将住处、若垂天恩、聴臣情願地者、

臣親歷視諸国、則合于臣心欲被給。乃聽之。於是、天日槍自菟道河泝之、北入近江国吾名邑而暫住。復更自近江經若狹国、西到但馬国則定住处也。是以、近江国鏡村谷陶人、則天日槍之從人也。Ⅲ、故天日槍娶但馬国出嶋人、太耳女麻多鳥、生但馬諸助也。諸助生但馬日槍杵。日槍杵生清彦。々々生田道間守之。】

（Ⅰ、三年春三月、新羅の國の王子、天日槍が来た。もってきたのは、羽太玉一つ・足高玉一つ・鶴鹿々の赤石の玉一つ・出石の小刀一つ、出石の杵一つ、日鏡一面、熊神籬一具、合わせて七点であった。それを但馬国におさめて神宝とした。

【Ⅱ、一説には、初め天日槍は、船に乗って播磨国にきて宍粟邑にいた。天皇が三輪君の祖の大友主、倭直の祖の長尾市とを遣わして、天日槍に「お前は誰か。また何れの國の人か」と尋ねられた。天日槍は「わたしは新羅の國の王の子です。日本の國に聖王がいると聞いて、自分の國を弟知古に授けてやってきました。」といった。そして奉ったのは、葉細の珠・足高の珠・鶴鹿々の赤石珠・出石の刀子・出石の槍・日の鏡・熊の神籬・胆狭浅の大刀合わせて八種類である。天皇は天日槍に詔して、「播磨国宍粟邑と、淡路島の出浅邑の二邑に、汝の心のままに住みなさい。」と言われた。天日槍は申し上げるのに、「私の住む所は、もし私の望みを許して頂けるなら、自ら諸国を巡り歩いて、私の心に適った所を選ばせて頂きたい。」と言った。お許しがあつた。そこで天日槍は宇治河を遡って、近江国の吾名邑に入つてしばらく住んだ。近江からまた若狹国を経て、但馬国に至り居所を定めた。それで近江国の鏡邑の谷の陶人は、天日槍に従っていた者である。

Ⅲ、天日槍は但馬国の出石の人、太耳の娘麻多鳥をめとって、但馬諸助を生んだ。諸助は但馬日槍杵を生んだ。日槍杵は清彦を生んだ。清彦は田道間守を生んだという。】

次に②垂仁紀88年条である。この場合も、便宜上、ⅠとⅡとに分けて掲げる。

Ⅰ、八十八年秋七月己酉朔戊午、詔群卿曰、朕聞、新羅王子天日槍、初來之時將來宝物、今有但馬。元為國人見貴、則為神宝也。朕欲見其宝物。即日、遣使者、詔天日槍之曾孫清彦而令獻。於是、清彦被勅、乃自捧神宝而獻之。羽太玉一箇・足高玉一箇・鶴鹿鹿赤石玉一箇・日鏡一面・熊神籬一具。唯有小刀一。名曰出石。則清彦忽以為非獻刀子、仍匿袍中、而自佩之。天皇未知匿小刀之情、欲寵清彦、而召之賜酒於御所。時刀子從袍中出而顯之。天皇見之、親問清彦曰、爾袍中刀子者、何刀子也。爰清彦知不得匿刀子、而呈言、所獻神宝之類也。則天皇謂清彦曰、其神宝之、豈得離類乎。乃出而獻焉。皆藏於神府。然後、開宝府而視之、小刀自失。則使問清彦曰、爾所獻刀子忽失矣。若至汝所乎。清彦答曰、昨夕、刀子自然至於臣家。乃明旦失焉。天皇則惶之、且更勿覓。是後、出石刀子、自然至于淡路嶋。其嶋人謂神、而為刀子立祠。是於今所祠也。Ⅱ、昔有一人、乘艇而泊于但馬国。因問曰、汝何國人也。對曰、新羅王子、名曰天日槍。則留于但馬、娶其国前津耳【一云、前津見。一云、太耳。】女、麻能鳥。生但馬諸助。是清彦之祖父也。

（Ⅰ、八十八年秋七月十日、天皇は、群卿に詔して、「新羅の王子、天日槍が初めてやってきたときに、持ってきた宝物は今但馬にある。国人に尊ばれて神宝となっている。自分は今その宝を見たいと思う」と言われた。その日に使いを遣わして、天日槍の曾孫清彦に献上す

るように詔された。清彦は詔をうけて、自ら神宝を捧げて献上した。羽太の玉一つ・足高の玉一つ・鵜鹿鹿の赤石の玉一つ・日鏡一面・熊神籬一つである。ただ刀子が一つだけあり、名を出石という。清彦は急に刀子はたてまつるまいと思って、衣の中に隠して、自分の身につけた。天皇はそれには気づかれず、清彦をねぎらうための御所で酒を賜った。ところが刀子は衣のなかから現れてしまった。天皇はご覧になって清彦に尋ねて、「お前の衣の中の刀子は何の刀子か」と言われた。清彦はかくす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白状して、「たてまつるところの神宝の一つです」と言った。天皇は「その神宝は仲間と一緒になくても差し支えないのか」といわれた。そこでこれを差し出し奉った。神宝は全部神府（みくら）に納められた。その後神府を開いて見ると、刀子はなくなっていた。清彦に尋ねさせられ、「お前がたてまつった刀子が急になくなった。お前の所へ行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われた。清彦は答えて「昨夕、刀子がひとりで私の家にやって来ましたが、今朝はもうありません」と言った。天皇はおそれ慚まれてまた求めようとはされなかった。この後、出石の刀子は、ひとりでに淡路島に行った。その島の人はその神だと思って、刀子のために祠を立て、今でもまつられている。Ⅱ. 昔、一人の人間が小舟に乗って、但馬国にやってきた。「何処の国の人か」と尋ねると答えて「新羅の国の王子、名を天日槍という」といった。そして但馬に留まり、その国の前津耳の女麻陀烏をめとって、但馬諸助を生んだ。これは清彦の祖父である。）

次に③90年条である。

九十年春二月庚子朔、天皇命田道間守、遣常世国、令求非時香菓。【香菓、此云箇俱能未。】今謂橘是也。

（九十年春二月庚子朔、天皇は田道間守に命じて、常世の国に遣わして、非時の香菓を求めさせた【香菓は、箇俱能未とよむ】。今、橘というのはこれである。）

次に④99年明年条である。99年条につづき、「明年」として記されており、そのようによぶことにする。99年条本文も掲げる。また、便宜上、ⅠとⅡに分ける。

九十九年秋七月戊午朔、天皇崩於纏向宮。時年百歳。

冬十二月癸卯朔壬子、葬於菅原伏見陵。

Ⅰ. 明年春三月辛未朔壬午、田道間守、至自常世国。則齋物也、非時香菓八竿八纒焉。田道間守、於是、泣悲歎之曰、受命天朝、遠往絶域。萬里蹈浪、遥度弱水。是常世国、則神仙秘区、俗非所臻。是以、往來之間、自經十年。豈期、独凌峻瀾、更向本土乎。然頼聖帝之神靈、僅得還來。今天皇既崩。不得復命。臣雖生之、亦何益矣。乃向天皇之陵、叫哭而自死之。群臣聞皆流淚也。Ⅱ. 田道間守、是三宅連之始祖也。

（Ⅰ. 明年の春三月辛未朔壬午に、田道間守は常世の国から帰った。もってきたものは、非時香菓・八竿八纒である。田道間守はここで〔天皇の崩御を聞いて〕悲しみ歎いて「天皇から命を受けて遙かに遠い処に行ったのです。萬里浪を越えて、はるかに弱水を渡りました。この常世の國は、神仙の国で、俗人の行くところではありません。そのために、常世とを往

来する間に、10年が経ちました。独りで高い波を凌いで、また本土に向かうことがどうしてできましようか。聖の帝の神霊をたよりに、かろうじて帰って来られたのです。今天皇が既に崩御されました。帰ってきて報告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私は生きていても何の益がありましようか。」といった。そして、天皇の陵に向かって、叫び泣きながら死んでしまった。群臣が聞いて皆涙を流した。Ⅱ. 田道間守は三宅連の始祖である。)

『日本書紀』の記事は、以上のとおりである。見られるとおり、アメノヒボコの直接の渡来記事は①であり、②に若干、みられるものの、②の主題は曾孫とされる清彦の宝物献上であり、③④は清彦の子田道間守の常世国往來の話である。

つづいて『古事記』の記事を見ることにしたい。まず、⑤垂仁段の次の記事である。

又天皇以三宅連等之祖、名多遲麻毛理、遣常世國、令求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自登下八字以音】。故多遲摩毛理、遂到其國、採其木實、以縵八縵・矛八矛、将来之間、天皇既崩。爾多遲摩毛理、分縵四縵・矛四矛、獻于太后、以縵四縵・矛四矛、獻置天皇之御陵戸、而擎其木實、叫哭以白、「常世國之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持參上侍」、遂叫哭死也。其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者、是今橘者也。此天皇御年、壹佰伍拾參歳。御陵在菅原之御立野中也。又其太后比婆須比賣命之時、定石作、又定土師部。此后者、葬狹木之寺間陵也。

(また天皇は、三宅連らの祖の多遲麻毛理を、常世國に遣わして、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を求めさせられた。そこで多遲摩毛理は、その國に行き、その木実を採って、縵八縵(かげやかげ)・矛八矛(ほこやほこ)を持って帰ってくる間に、天皇は既に崩御されていた。多遲摩毛理は、縵四縵・矛四矛を分けて、太后に献上し、縵四縵・矛四矛を天皇の陵戸に献上して置いて、その木の實をささげもって泣き叫び、「常世國の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を持って参りました」と言って、とうとう叫び泣きながら死んでしまった。その登岐士玖能迦玖能木實は、今の橘である。この天皇(垂仁)の御年は、153歳だった。御陵は菅原の御立野の中にある。またその太后である比婆須比賣命の時、石祝作(いしきつくり)を定め、土師部(はにしべ)を定められた。この後は、狹木(さき)の寺間(てらま)の陵(はか)に葬られた。)次に⑥応神段で、次の通りである。これも便宜上、Ⅰ～Ⅲに分ける。

Ⅰ. 又昔有新羅國王之子。名謂天之日矛。是人參渡来也。所以參渡来者、新羅國有一沼。名謂阿具奴摩【自阿下四字以音】。此沼之邊、一賤女晝寢。於是日耀如虹、指其陰上。亦一有賤夫。思異其状、恒伺其女人之行。故是女人、自其晝寢時、妊身、生赤玉。爾其所伺賤夫、乞取其玉、恒裹着腰。此人營田於山谷之間。故耕人等之飲食、負一牛而、入山谷之中、遇逢其國主之子、天之日矛。爾問其人曰、「何汝飲食負牛入山谷。汝必殺食是牛」、即捕其人、將入獄囚。其人答曰、「吾非殺牛。唯送田人之食耳」。然猶不赦。爾解其腰之玉、幣其國主之子。故赦其賤夫、将来其玉、置於床邊、即化美麗孃子。仍婚爲嫡妻。爾其孃子、常設種種之珍味、恒食其夫。故其國主之子、心奢詈妻、其女人言、「凡吾者、非應爲汝妻之女。將行吾祖之國」、即竊乘小船、逃遁渡来、留于難波。【此者坐難波之比賣碁曾社、謂阿加流比賣神者也】。Ⅱ. 於是天之日矛、聞其妻遁、乃追渡来。將到難波之間、其渡之神、塞以不入。故更還泊多遲摩

國。即留其國而、娶多遲摩之俣尾之女、名前津見、生子、多遲摩母呂須玖。此之子、多遲摩斐泥。此之子、多遲摩比那良岐。此之子、多遲麻毛理。次多遲摩比多訶。次清日子【三柱】。此清日子、娶當摩之咩斐、生子、酢鹿之諸男。次妹菅竈上由良度美【此四字以音】。故上云多遲摩比多訶、娶其姪、由良度美、生子、葛城之高額比賣命。【此者息長帶比賣命之御祖】。Ⅲ、故其天之日矛持渡來物者、玉津寶云而、珠二貫。又振浪比礼【比礼二字以音。下效此】・切浪比礼・振風比礼・切風比礼。又奥津鏡・邊津鏡、并八種也。【此者伊豆志之八前大神也】。

（Ⅰ、また昔、新羅の国王の子がいて、名は天之日矛といった。この人は海を渡ってわが国に來た。渡來したわけは次のような次第である。新羅國に一つの沼があつて、その名を阿具奴摩という【註略】。この沼のほとりに一人の卑しい女が昼寝をしていた。すると日の光が虹のようにその女の陰部のあたりを射した。また一人の卑しい男がいて、その様子を不思議に思つて、その後いつもその女の行動をひそかに觀察していた。するとこの女は昼寝をしたときから身重になつて、赤い玉を生んだ。そこで様子をうかがっていた卑しい男はその玉を女に所望して手に入れ、いつも包んで腰につけていた。この男は田を谷間に作っていた。それで農夫たちの飲食物を一頭の牛の背に載せて谷の中にはいつていつたところ、かの国王の子の天之日矛に出會つた。天之日矛がその男に尋ねて、「どうしてお前は飲食物を牛に背負わせて谷にはいるのだ。お前はきっとこの牛を殺して食うつもりなのだろう」といつて、すぐにもその男を捕まえて牢屋に入れようとした。その男は答えて、「わたしは牛を殺そうと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ただ農夫の食べ物を運ぶだけです」といつた。けれども天之日矛はなおも許さなかつた。そこで男は腰につけた玉をほどいて、その国王の子に捕縛からのがれるために贈つた。これを受け取つた天之日矛は、その卑しい男を許し、その玉を持ち、歸つて床のあたりに置いたところ、玉は美しい乙女と姿を変えた。それで天之日矛はその乙女と結婚して正妻とした。それ以來、その乙女はいつもさまざまな山海の珍味を用意して、その夫に食べさせた。ところが、その国王の子が高慢になつて妻をののしるので、その女は「だいたい私はあなたの妻になるような女ではありません。私は祖先の國に行きます」といつて、すぐにこっそりと小舟に載つて逃げ渡つてきて、難波にとどまつた。【これは難波の比売碁會（ひめこそ）の社に鎮座する阿加留比売（あかるひめ）という神である】。Ⅱ、一方、天之日矛はその妻が逃げたことを聞き、さっそくその後を追つて渡つてきて、難波に行こうとしたが、その海峡の神は行く手をさえぎつて入れなかつた。そのため、更に迂回して但馬國に停泊した。そのままその國にとどまつて、多遲摩之俣尾之（たじまのまたお）の娘で名を前津見（まえつみ）という人と結婚して生んだ子が多遲摩母呂須玖（たじまのもろすく）である。そしてその子が、多遲摩斐泥（たじまひね）であり、またその子は多遲摩比那良岐（たじまひならき）である。さらにその子は、多遲麻毛理（たじまもり）、次に多遲摩比多訶（たじまひたか）、次に清日子である【三柱】。この清日子が當摩之咩斐（たじまのめひ）と結婚して、生んだ子は、酢鹿之諸男（すがのもろお）。次に妹の菅竈上由良度美（すがかまのゆらとみ）である。それから先に述べた多遲摩比多訶がその姪の由良度美と結婚して生んだ子は葛城之高額比賣命（かすらぎのたかぬかひめのみこと）である【この方は息長帶比賣命（神功皇后）の母君】。Ⅲ、さて、その天之日矛が持つて來た物は、玉津寶（たまつたから）と

いって、珠二連、また浪振る比礼・浪切る比礼・風振る比礼・風切る比礼、また奥津鏡・辺津鏡、合わせて八種である【これは伊豆志神社に祭る八坐の大神である】。）

『古事記』の記事は、⑤が多遲麻毛理の話であり、『日本書紀』の③④と対応する。アメノヒボコの渡来は、⑥に述べられている。そのⅢに、将来したものについての記述があり、鏡が登場する。

『播磨国風土記』には、鏡の話が登場するわけではないが、アメノヒボコ伝承が各地に残っている。順にみていく。

⑦揖保郡揖保里條

所以称粒者此里依於粒山。故因山為名粒丘。所以號粒丘者、天日槍命從韓國渡來、到於宇頭川底而乞宿處於葦原志舉乎命曰、汝為國主、欲得吾所宿之處。志舉即許海中。爾時客神以劍攪海水、而宿之。主神即畏客神之盛行、而先欲占國、巡上到於粒丘而食之。於此自口落粒、故號粒丘。其丘小石、皆能以粒。又以杖刺地、即從杖處。寒泉涌出、遂通南北、々寒南温。

（粒丘と称するわけは、この里は粒山に寄り添っている。だから山によって里の名とする。粒丘 粒丘と呼ぶわけは、天日槍命が韓国から渡ってきて宇頭川下流の川口に着いて、宿所を葦原志舉乎命にお乞いになって申されるには「あなたはこの国の主(首長)たる方である。私の泊まる場所を与えて欲しい」と。そこで志舉は海上にいることを許した。その時客神は剣をもって海水をかきまわしてこれに宿った。すなわち主の神は客の神のこの[ただけしく]盛んな行為に恐れかしこんで[客神よりも]先に國を占めようと思い、巡り上って粒丘まで来て[急いで]食事した。すると口から粒[めし粒]が落ちた。だから粒の丘とよぶ。その丘の小石は皆よく粒に似ている。また杖をもって地面に刺した。するとその杖の処から冷たい泉が湧き出てついに南と北とに流れ通った。北は冷たく、南は温かい。）

次の6例は、『播磨国風土記』宍禾郡條にみえるものである。

⑧川音村

川音村。天日槍命宿於此村。勅云、川音甚高、故曰川音村。

（川音の村。天日槍命がこの村にお宿りになり、勅して「川音はひどく高い」と仰せられた。だから川音の村という。）

⑨奪谷

奪谷。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二神相奪此谷。故曰奪谷。以其相奪之由、形如曲葛。

（奪谷。葦原志許乎命と天日槍命と二人がこの谷を奪いあった。だから奪谷という。それを奪い合ったことによって、その形は曲がった藤蔓のようになっている。）

⑩高家里

高家里【上下中】。所以名曰高家者。天日槍命告云、此村高勝於他村、故曰高家。

高家の里【土は下の中である】。里の名を高家というわけは、天日槍が、この村は高いことでは他の村にまさっている、と仰せられた。だから、高家という。

⑪伊奈加川

伊奈加川。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占國之時、有嘶馬、遇於此川。故曰伊故奈加川。

(伊奈加川。葦原志許乎命が天日槍命と競争で國を占められたとき、嘶く馬があつて、この川で出会った。だから伊奈加川という。)

⑫波加村

波加村。占國之時、天日槍命先到此處。伊和大神後到。於是大神大恠之云、非度先到之云、非度先到之乎。故曰波加村。到此處者、不洗手足必雨。

(波加の村。國を占められた時、天日槍命が先にここに来て、伊和大神はその後でここに来た。そこで大神は大変これを不思議がつて仰せられた。「はからざるに[思いがけなくも]先に来ていたものだ」と。だから波加の村という。ここに来るものは手足を洗わないとかならず雨が降る。)

⑬御方里

御方里【土下上】。所以號御形者、葦原志許乎命與天日槍命、到於黑土志爾嵩、各以黑葛三條着足之。爾時、葦原志許乎命之黑葛、一條落但馬氣多郡、一條落夜夫郡、一條落此村。故曰三條。天日槍命之黑葛、皆落於但馬國。故占但馬伊都志地而在之。一云、大神爲形見、植御杖於此村。故曰御形。

(御方の里【土は下の上である】。御形と呼ぶわけは、葦原志許乎命は天日槍命と黒土の志爾嵩にお行きになり、お互いにそれぞれ黒葛(葦草)を三條、足に着けて投げあいをされた。その時葦原志許乎命の黒葛は一條は但馬の氣多の郡に落ち、一條は夜夫郡に落ち、一條(三條目)はこの村に落ちた。だから三條(みかた)という。天日槍命の黒葛はみんな但馬に落ちた。だから但馬の伊都志(いずし・出石)の地を占めておいでになる。あるいはこうもいっている。「大神が形見(形しろ)として御杖をこの村に立てられた。だから御形(みかた)という、と。)

次に神前郡條であるが、

⑭梗岡里

梗岡者、伊和大神與天日杵命二神、各發軍相戰。爾時、大神之軍集而舂稻之。其梗聚爲丘。又其簸置梗、云墓又云城牟禮山。一云、掘城處者、品太天皇御俗、參渡來百濟人等、隨有俗、造城居之。其孫等、川邊里三家人夜代等。

(梗岡は、伊和大神と天日杵命の二人の神がおのおの軍兵を發して互いに闘った。その時、大神の軍兵は集まって稲をついた。その梗が群れ集まって丘となった。またその簸置いた(飾った)梗を墓といい、また城牟礼山という。あるいはいう、「城を掘った場所は、品太天皇の御俗に渡來した百濟人らが[自分たちの]習俗にしたがつて城を造って住んだ。その孫たちは川邊の里の三家(みやけ・御宅)の人夜代らである。)

⑮八千軍

所以云八千軍者、天日杵命軍在八千。故曰八千軍。

(八千軍というわけには、天日杵命の軍兵が八千あつた。だから八千軍という。)

最後に、『筑前国風土記』であるが、現存せず、佚文がいくつか残されているのみである。ここに掲げるのは、『釈日本紀』卷10の本文「伊觀縣主祖五十迹手」につけられた注に引用され

て残ったものである(16)。

筑前國風土記曰、怡土郡。昔者穴戸豐浦宮御宇足仲彦天皇。將討球磨噲。幸筑紫之時。怡土縣主等祖五十跡手聞天皇幸拔取五百枝賢木。立于船舳。上枝挂八尺瓊中枝挂白銅鏡下枝挂十握釵。參迎穴門引嶋獻之。天皇勅問。阿誰人。五十跡手奏曰、高麗國意呂山自天降來日杵之苗裔五十跡手是也。天皇於斯譽五十跡手曰恪手【謂伊蘇志】五十跡手之本土可謂恪勤國。今謂怡土郡訛也。

(筑前國風土記に次のように言っている。怡土郡は昔、穴戸豐浦宮で天下を治められた足仲彦(たらしなかつひこ)天皇(仲哀)が球磨噲(くまそ)を討とうとして筑紫に行幸された時、怡土の縣主等の祖五十跡手(いとて)が天皇が行幸されたことを聞いて、五百枝の賢木を引き抜いて、船の舳に立て、上の枝には八尺瓊(やさかに)を、中の枝には白銅鏡(ますみかがみ)を、下の枝には十握釵(とつかのつぎ)を掛けて、穴門の引嶋に迎えて献上した。天皇が勅問し、誰であるかを問うた。五十跡手が奏して言った。高麗國の意呂山に天から降ってきた日杵の末裔の五十跡手であります、と。天皇はここに五十跡手を称えて、恪(いそしい)(忠勤)ことである。五十跡手の本土を恪勤國といいなさい、と言った。今、怡土郡というのは、それが訛ったのである。)

とある。

さて、ここでは、アメノヒボコが献上した品の中に、鏡が含まれることに注目したいのであるが、そもそもアメノヒボコの渡来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のかについて、知っておく必要がある。

アメノヒボコは、「新羅王子」(①Ⅰ)「新羅国主之子」(①Ⅱ)「新羅王子」(②Ⅰ)「新羅王子」(②Ⅱ)「新羅國王之子」(⑥Ⅰ)と自称・他称で表記されるように、新羅の王子とされる人物である。しかし、日本にやってくる前に、自分の国を授けたという「弟知古」も含めて、残された新羅の記録には登場しない。実際には王子ではないにも拘わらず、王子と称して日本にやってくる例があるが、この場合、厳密に考える必要はなかろう。個別の事実であるとしてとらえる必要がないのであるから。新羅と日本との関係は概してよくない。百済や加耶の南部と友好な関係を保ったが、新羅は全体の歴史のなかでも、関係の良好な時期はそれほど長くないといえる。ただしそれでも、新羅人の日本への渡来は十分に考えられる。国家的政治的な関係が悪くても、民間の交流はありうるのであり、またその社会から排斥された人々が、関係の悪いところへ意識的に移住する、という場合も想定できる。

アメノヒボコ伝承がすべて虚構であるという意見もあるが、一般的には、新羅からの渡来者集団を象徴的に述べたものであるとする考えが浸透している。現実の渡来者集団があり、その渡来や定着の状況を、アメノヒボコに託して述べたものであ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新羅の王子であるアメノヒボコなる人物が日本にやって来たということを、歴史的事実として認めるのは難しいが、新羅からの渡来者があったことは十分に想像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あり、そうした事実が背景になって、伝承が造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確証はないが、およそそういうことであろうと考えてさしつかえないであろう。

子孫であるタジマモリは、常世国を往来するが(③④⑤)、その常世とは、南方の国と想定され、アメノヒボコの実郷も、新羅ではなく、南方の国であるとみる意見があるが、常世国とアメノヒボコを結びつけた記述はなく、わけて考えるべきであろう。アメノヒボコは、記されたとおりに、新羅からやって来た、とされる渡来者であると考えることが基本である。

次に、アメノヒボコが、どのようなルートでやって来たのかについて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詳細な議論をする余裕はないが、①Ⅱでは、播磨国宍粟邑にやって来て、宇治河を遡り、近江国の吾名邑に入ってしばらく住み、近江から若狭国を経て、但馬国に至って定着した、としている。①Ⅲには、但馬国出石で妻をめとり、その後子孫にうけつがれていくことが述べられている。②Ⅱでも、小舟で但馬にやって来て、但馬に留まり住んだ、としている。いっぽう⑥Ⅱによれば、妻阿加留比売を追いかけて難波へ行こうとしたが、海峡にさえぎられて行くことができず、但馬に停泊してそこに留まった、とする。『播磨国風土記』では、アメノヒボコの痕跡があちこちで見られ、葦原志許乎命と土地争いをしているが、⑬にみるように、やはり但馬の伊都志を占めたことが記される。⑯には、筑前の怡土の縣主等の祖五十跡手が、アメノヒボコの末裔であるというもので、かならずしも怡土にやって来たことを述べるものではないが、関連する地名として注目してよい。

これらを整合的に考えようとすれば、新羅から海を渡って、まず筑前の怡土に立ち寄り、そこから瀬戸内海を通して播磨に着き、定着地についての争いを経て、宇治川をさかのぼって近江へ行き、しばらくとどまったのち、若狭を経て、最終的には但馬の出石に到達し、そこで定着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渡来人が定着地を求めて、移動する状況を生々しく伝えているという見方もあるが、伝承があとで加えられた可能性もある。例えば、近江は、アメノヒボコと息長氏との系譜的關係が述べられており、かつ息長氏の本拠地が近江であることから、息長氏の立場から、アメノヒボコが立ち寄ったことを伝えようとした、というように考えることがある。最終的な定着地については、但馬出石とすることと矛盾する叙述はなく、そこに至るまでに、どのルートを取っても、あり得ないとはいえないが、伝承の形成としては、恐らく、単に但馬へ到着したという伝承が基幹となって、それに肉付けするかたちで、途中の経由地についての伝承ができていったのであろう。ここでの関心は、ルートの解明・真偽ではなく、但馬出石への渡来・定着が基本伝承であることを確認すればよい。

アメノヒボコ伝承地が、渡来人集団である秦氏の居住地とが重なることが多いため、アメノヒボコの伝承に秦氏がなんらかの形で関与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がある。秦氏は新羅系または加耶系の渡来人集団であろうと言われている。しかし、伝承地と居住地がおよそ重なるということ以外には、納得できる根拠があるわけではない。特に播磨においては、秦氏の定着地の分布と重なるものが多く、さらに鉄の生産とも関わり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されることがある。しかし、アメノヒボコの、あるいはその集団の定着地は、但馬であって、播磨は通過点にすぎない。但馬には、アメノヒボコを祭る出石神社をはじめとして、アメノヒボコもしくはその一族を祭る神社が数多いが、秦氏の伝承地と重な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また製鉄とことさら関わるということもない。この問題は、厳密な議論の詰めのないまま、およそそうではないか、という程度で、受け入れられているようであるが、今後、具体的な材料をもとに議論をすすめるべきであ

ろう。

伝承においては、アメノヒボコがもたらしたものがあり、その中に、鏡が含まれる。①Ⅰでは「日鏡一面」、①Ⅱ「日鏡」、②Ⅰ「日鏡一面」、⑥Ⅲ「奥津鏡・辺津鏡」とされる。⑬は、アメノヒボコのもたらしたものではないが、末裔の五十跡手が「白銅鏡」を賢木に掛けたと記している。

ほかの宝物をあわせて、シャーマンの持ち物であるとの見方もあるが、アメノヒボコ集団として考える立場であれば、鏡の製作者集団の象徴ということでもいいのかも知れない。ただ、上記のように、一般的に言われる、鉄生産との関わりについても、なお確証がない状態であり、鏡の製作との関わりを、伝承以外の材料でどこまで明らかにできるか、はなはだ心許ない。その名に「ホコ」を含んでおり、用字としても「槍」「矛」「鉾」である。そのような点にも、鉄や銅の生産や、鉄製品・銅製品の製作技術をもった集団ではないかと想定されるのであるが、具体的な検証は、今後の課題である。

①Ⅱにみえる「近江国鏡村谷」は、「鏡」字が注目される。現在の滋賀県竜王町あたりに比定されるが、そこは土器窯が多く、「陶人」とされることと結びつけて考えることは可能であるが、「鏡」と関わるようなものはない。

以上、渡来人の代表的な存在でもあるアメノヒボコの伝承に、鏡が登場することをもとに、簡単に伝承についてふれたみた。新羅からの渡来者集団は、かならず実在していたはずで、その具体的ないずれかが、アメノヒボコ伝承として、象徴的に語られたということであり、一般的には、現実の渡来人集団である秦氏との関連を指摘することが多いが、具体的な結びつきはよくわからない。さらに一般的に、製鉄技術に関わる集団であるという推測がなされることがあるが、その点にも、確かな根拠はない。しかし、もたらした宝物に鏡が含まれるという点もまた、何らかの象徴であるのは確かであろうし、その限りにおいて、新羅から鏡がもたらされている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なお、例えば、福岡の香春神社は、『豊前国風土記』には、「新羅の国の神」が渡来してきたとされる鹿春の神が祭神であり、秦氏に祭祀された銅産神であるという指摘もある。アメノヒボコ伝承と直接結びつくわけではないが、新羅からの銅、という点で共通する。秦氏あるいは秦氏と関わる神社には、そのような伝承がみられ、ひとつの技術的な流れの方向性を示唆するものと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

2 七支刀と七子鏡

アメノヒボコ伝承は、新羅との関係をうかがわせるものといえるが、次に、百済との関係を示すものとして、七子鏡の献上記事を取りあげたい。

それは、『日本書紀』神功皇后摂政52年条にみえる次の記事である。

秋九月丁卯朔丙子、久氐等從千熊長彦詣之。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宝。

(秋九月丁卯朔丙子、久氏等が千熊長彦についてやって来た。そして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および種々の重宝を献上した。)

これは、むしろ「七枝刀」の献上記事として知られるものである。『古事記』にも、

亦百濟國主照古王、以牡馬壹疋・牝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阿直史等之祖】。亦貢上横刀及大鏡。

(また百濟国主である照古王が牡馬一匹と牝馬一匹を阿知吉師に託して貢いできた【この阿知吉師というのは、阿直史らの先祖にあたる】。また横刀と大鏡を貢いできた。

とあり、内容的に対応する。こちらでは「大鏡」となっている。

これがどのような経緯で「献上」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かは、『日本書紀』のそれに先立つ神功紀46～51年条を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上記の52年条およびそれにつづく、肖古王関連の記事もとれば、次のようになる。

四十六年春三月乙亥朔、遣斯摩宿祢于卓淳国。【斯摩宿祢者、不知何姓人也。】於是、卓淳王末錦早岐、告斯摩宿祢曰、甲子年七月中、百濟人久氏・弥州流・莫古三人、到於我土曰、百濟王、聞東方有日本貴国、而遣臣等、令朝其貴国。故求道路、以至于斯土。若能教臣等、令通道路、則我王必深德君王。時謂久氏等曰、本聞東有貴国。然未曾有通、不知其道。唯海遠浪嶮。則乘大船、僅可得通。若雖有路津、何以得達耶。於是、久氏等曰、然即当今不得通也。不若、更還之備船舶、而後通矣。仍曰、若有貴国使人來、必応告吾国。如此乃還。爰斯摩宿祢即以僊人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遣于百濟国、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而厚遇焉。仍以五色綵絹各一匹、及角弓箭、并鐵鋌四十枚、幣爾波移。便復開宝藏、以示諸珍異曰、吾国多有是珍宝。欲貢貴国、不知道路。有志無從。然猶今付使者、尋貢獻耳。於是、爾波移奉事而還、告志摩宿祢。便自卓淳還之也。

四十七年夏四月、百濟王使久氏・弥州流・莫古、令朝貢。時新羅国調使、與久氏共詣。於是、皇太后・太子嘗田別尊、大歡喜之曰、先王所望国人、今來朝之。痛哉、不逮于天皇矣。群臣皆莫不流涕。仍檢校二国之貢物。於是、新羅貢物者、珍異甚多。百濟貢物者、少賤不良。便問久氏等曰、百濟貢物、不及新羅、奈之何。對曰、臣等失道、至沙比新羅。則新羅人捕臣等禁固圉。經三月而欲殺。時久氏等、向天而呪詛之。新羅人怖其呪詛而不殺。則奪我貢物、因以、為己国之貢物。以新羅賤物、相易為臣国之貢物。謂臣等曰、若誤此辞者、及于還日、当殺汝等。故久氏等恐怖而從耳。是以、僅得達于天朝。時皇太后・嘗田別尊、責新羅使者、因以、祈天神曰、当遣誰人於百濟、將檢事之虛実。当遣誰人於新羅、將推問其罪。便天神誨之曰、令武内宿祢行議。因以千熊長彦為使者、当如所願。【千熊長彦者、分明不知其姓人。一云、武藏国人。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百濟記云職麻那々加比跪者、蓋是歟也。】於是、遣千熊長彦于新羅、責以濫百濟之獻物。

四十九年春三月、以荒田別・鹿我別為將軍。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至卓淳国、將襲新羅。時或曰、兵衆少之、不可破新羅。更復、奉上沙白・蓋盧、請增軍士。即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但木羅斤資者、百濟將也。】領精兵、與沙白・蓋盧共遣之。俱集于卓淳、擊新羅而破之。因以、平定比自■(火+本)・南加羅・喙国・安羅・多羅・卓

淳・加羅、七国。仍移兵、西廻至古奚津、屠南蛮枕弥多礼、以賜百濟。於是、其王肖古及王子貴須、亦領軍來會。時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邑、自然降服。是以、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相見欣感。厚礼送遣之。唯千熊長彦與百濟王、至于百濟国、登辟支山盟之。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時百濟王盟之曰、若敷草為坐、恐見火燒。且取木為坐、恐為水流。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是以、自今以後、千秋萬歲、無絶無窮。常稱西藩、春秋朝貢。則將千熊長彦、至都下厚加礼遇。亦副久氏等而送之。

五十年春二月、荒田別等還之。

夏五月、千熊長彦・久氏等、至自百濟。於是、皇太后歛之間久氏曰、海西諸韓、既賜汝国。今何事以頻復來也。久氏等奏曰、天朝鴻沢、遠及弊邑。吾王歡喜踊躍、不任于心。故因還使、以致至誠。雖逮萬世、何年非朝。皇太后勅云、善哉汝言。是朕懷也。增賜多沙城、為往還路駅。

五十一年春三月、百濟王亦遣久氏朝貢。於是、皇太后語太子及武内宿祢曰、朕所交親百濟国者、是天所致。非由人故。玩好珍物、先所未有。不闕歲時、常來貢獻。朕省此款、每用喜焉。如朕存時、敦加恩惠。

即年、以千熊長彦、副久氏等遣百濟国。因以、垂大恩曰、朕從神所驗、始開道路。平定海西、以賜百濟。今復厚結好、永寵賞之。是時、百濟王父子、並類致地、啓曰、貴国鴻恩、重於天地。何日何時、敢有忘哉。聖王在上、明如日月。今臣在下、固如山岳。永為西藩、終無弑心。五十二年秋九月丁卯朔丙子、久氏等從千熊長彦詣之。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及種々重宝。仍啓曰、臣国以西有水。源出自谷那鐵山。其邈七日行之不及。當飲是水、便取是山鉄、以永奉聖朝。乃謂孫枕流王曰、今我所通、海東貴国、是天所啓。是以、垂天恩、割海西而賜我。由是、国基永固。汝當善脩和好、聚斂土物、奉貢不絶、雖死何恨。自是後、每年相統朝貢焉。

五十五年是歲、百濟肖古王薨。

五十六年是歲、百濟王子貴須立為王。

この46年～52年条は、一連の記事として、百濟の倭に対する「朝貢」の起源をのべたものである。かなり長いので、要約して示せば、次のようになる。

四十六年三月、斯麻宿禰を卓淳国に派遣した。卓淳王が斯麻宿禰に言った。「甲子年七月に百濟の久氏ら三人がやってきて、倭への道を尋ねたが、まだ通じていないので知らない」と答えたところ、もし倭の使者が来たら告げて欲しいといって帰った」と。斯麻宿禰はそこで從者（爾波移）と卓淳人（過古）を百濟に派遣した。百濟の肖古王は喜んで厚遇した。從者は卓淳にもどり、志摩宿禰に伝え、ともに帰国した。

四十七年四月、百濟王、久氏ら三人を派遣して朝貢してきた。いっしょに新羅の朝貢使も来た。二国の貢物を調べると、新羅のほうは珍異なものが多く、百濟のほうはよくなかった。久氏らにただしたところ、道に迷って新羅に着き、貢物を取り替えられてしまったと訴えた。そこで皇太后は新羅の使者を責め、天神に誰を新羅に派遣して罪を問わすべきか聞いた。天神は千熊長彦【千熊長彦はその姓がよくわからない。『百濟記』に「職麻那那加比跪」という

のはこれであろうか】がよいと教えたので、千熊長彦を新羅に派遣し、問罪させた。

四九年(a)春三月、荒田別・鹿我別を将軍として、百済からの使者である久氐らとともに兵をととのえて渡り、卓淳国にいたり、新羅を襲おうとした。(b)そのときにあるものがいった。「兵衆が少なければ、新羅を破ることはできません。さらにまた沙白盖盧を奉じて軍士を増すことを要請いたします」と。(c)そこで木羅斤資・沙沙奴跪【このふたりはその姓がわからない。ただし木羅斤資のみは百済の将である】に命じ、精兵をひきいて、沙白盖盧とともに派遣した。ともに卓淳に集い、新羅を撃って破った。(d)その結果、比自■(火+本)・南加羅・喙国・安羅・多羅・卓淳・加羅の七国を平定した。(e)そこで兵を西に移して、古奚津にいたり、南蛮の枕弥多礼を攻取して百済に賜与した。(f)ここで、百済王の肖古および王子の貴須がまた軍をひきいて来会した。(g)ちょうどそのとき、比利・辟中・布弥支・半古の四邑(または、比利・辟中・布弥・支半・古四の〔五〕邑)がみずから降伏してきた。(h)そこで、百済王父子および荒田別・木羅斤資らがいっしょに意流村に会し、たがいに見て喜び、厚くもてなして送らせた。(i)ただ千熊長彦と百済王は、百済国にいたり、辟支山に登って盟した。また、古沙山に登り、磐石のうえで、百済王が盟していった。「……磐石の上で盟するのは、長く朽ちることがないことを示すものです。そこで、いまからのち、千秋万歳まで絶えることなく、常に西蕃と称し、春秋に朝貢いたします」と。(j)そこで千熊長彦をつれて都下にいたり、厚く礼遇し、また久氐らをつけて送った。

五〇年二月、荒田別らが帰国した。五月に千熊長彦・久氐らやってきた。皇太后がどうしてしきりにくるのか尋ねると、久氐らは、わが王が喜んで、至誠を表わすのですと答えた。そこで多沙城を増賜した。

五一年三月、百済王がまた久氐を派遣した。千熊長彦に久氐を送らせた。百済王の父子は額を地につけ、永久に西蕃となり、貳心のないことを誓った。

五二年九月、久氐らが千熊長彦に従ってやってきて、七枝刀・七子鏡および重宝を献じた。

これより以後、毎年朝貢してきた。

神功紀46年は、『日本書紀』の紀年でいえば、西暦246年にあたる。しかし、明治以来の紀年論争を経て、神功紀の記事は、その年代のこととみるのではなく、干支2めぐり(60年×2)つまり120年繰り下げて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神功摂政55年に肖古王が薨じたとするが、その年は『日本書紀』の立場では255年ということになる。しかし、『三国史記』の記事にみられるように、近肖古王の死は、375年であり、そこに120年の差があるのである。

上記の神功紀の記事では、註に「百済記」を引用しているが、『日本書紀』全体としては、「百済記」「百済新撰」「百済本記」を引用する記事が少なくない。これらを百済三書と総称するが、これらは、百済滅亡後、百済人たちが本国から持ってきたそれぞれの家系や王系などをもとにしつつ、倭に亡命して来て、新たに倭の天皇に仕えるにあたり、歴史的に、いかにみずからの家系が、天皇家に奉仕してきたかを虚実とりまぜて記して、提出したものであり、『日本書紀』の編纂に際して、特に紀年のよりどころになったものである。しかしそれならば、この箇所のように、「百済記」を用いながら、近肖古王の年代にちょうど120年のずれがあることは理解しがたい

が、それは、『日本書紀』の編者が、そのことを承知しつつ、意識的に、ほんらいあった年代から120年昔のできごととして書いたためであった。それには目的があったのであるが、いま、神功紀を利用する場合は、逆に、120年繰り下げて、つまりもとの紀年にもどして考える必要が生じたのである。

さて、この神功紀46年～52年の記事であるが、そのように修正して、366年から372年のことを記しているものととらえれば、すべて事実としてみな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え、問題がないわけではない。

特に問題点は、49年条に集中してみられる。ここで詳細を述べる余裕はないが、49年条に木羅斤資が登場しており、その木羅斤資が『日本書紀』では、これ以外に2回登場する。その木羅斤資関連の記事は、結論的に、もう60年繰り下げてと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が正しい、と思う。

ということで、49年条であるが、木羅斤資がみえる記事(c)と(h)、および(c)とつながり、しかも「沙白盖廬」という『百済記』の表記らしい人名をふくむ(b)をとりあえず、ほんらい429年に繫年されていたものとする。(c)と(h)の間にある(d)(e)(g)も、いちおう、それに準じて考えてみる。とすると、「荒田別・鹿我別」のみえる(a)と「百済王の肖古および王子の貴須」のみえる(f)と「千熊長彦」のみえる(i)(j)が残るが、これはそれらとは切り離して考えてみよう。ほんらい369年に繫年されていたものかどうかはいま問わないで、ほかといっしょにさらにくりさげては考えないのである。

そのような考えのもとで、整理してみると、神功紀49年条のうち、前後の記事とつながるものは、次のような内容である。

四十九年三月、荒田別・鹿我別を將軍として、百済からの使者である久氐らとともに兵をととのえて渡り、卓淳国にいたり、新羅を襲おうとした。ここで、百済王の肖古および王子の貴須がまた軍を率いて来会した。千熊長彦と百済王は、百済国にいたり、辟支山に登って盟した。また、古沙山に登り、百済王が盟していった。「千秋万歳まで絶えることなく、常に西蕃と称し、春秋に朝貢いたします」と。そこで千熊長彦をつれて都下にいたり、厚く礼遇し、また久氐らをつけて送った。

これで、前後が問題なく、つながることになる。そして全体を通して、百済王が倭王に服属し、朝貢してくるようになった起源を記した記事となっている。およそ、『百済記』をもとにした記事を核にしていることが想像される。

しかし、たとえば古典文学大系の『日本書紀』の頭注にも、「百済記を史料とし、かなり自由な筆致で構文したもの。ただし、五十年条・五十一年条などは全体として書紀の述作とみられ、四十七年条もそれか」とあるように、『日本書紀』の造作が多いことも古くから指摘されている。とくに、そこにあげられている50年条・51年条は、一般的にあきらかな造作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

これをみれば、『日本書紀』がいったいなにを主張しようとしたか、明白である。倭はこのころより、百済がくりかえし朝貢使をおくり、西蕃と称し、永久に朝貢することを誓うあいてとし

て存在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ような主張をするために、それ以外でも造作がおこなわれているが、わたしは、つぎのように考える。

(1) 46年条には、倭から卓淳への使者派遣と、その使者が従者「爾波移」を卓淳から百済に派遣した(卓淳人「過古」に随伴して)ことを伝える。卓淳王と倭の使者との問答などは造作が多いが、百済に倭人が卓淳人といっしょにや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ことは、『百済記』に伝わっていてもよさそうである。

(2) 46年条の卓淳王のことはの中にみえる「甲子年」は364年であろう。この年、百済の使者が卓淳にきたということは、認めてよかろう。ただし、卓淳の王が倭の使者に告げる、というかたちで、『百済記』にあったとは思えない。この年百済が卓淳に使者をおくった、というようなこと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

(3) 47年条には百済から久氐ら3人(ほかに弥州流・莫古)が派遣されたことを伝える。この人名が『百済記』によったものであることは問題なかろう。ただし、久氐らは、あきらかな造作とされる50年条・51年条をふくめて前後4回(最後は52年条)、倭に使者として来ている。上に引いた古典文学大系の頭注では、47年条も造作であると考えており、わたしも大半はそうであると思うが、久氐らの派遣の事実が一回のみであれば、ここまで久氐らにこだわって造作するのはしつようにすぎるように思う。わたしは、久氐らがやって来たのは47年と52年の2回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4) 「職麻那那加比跪」が『百済記』にみえることは疑いない。ではそれはいつどのようなかたちでか。49年条に、「千熊長彦」が登場する。しかもそこでは、百済王と会するかたちで登場する。しかしいつ派遣されたかは記していない。探せば、47年条に、新羅に派遣したとみえるのがあるのみであり、記事のかぎりではこのあと百済にむ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47年条の新羅への派遣は造作であり、百済に直接派遣した、というのが本来ではなかろうか。ただし、その繫年が気にはなる。繫年はべつにして、『百済記』にはほんらい、「職麻那那加比跪」が百済に来て百済王と会し、百済王は久氐らをつけておくった、とあったと考える。

(5) それでは、「職麻那那加比跪」が久氐らにともなわれて倭にもどったのはいつか。50年条・51年条が造作であるとすれば、それは、52年しかない。ここでわたしは、52年条の繫年にも造作を想定したい。52年条は一般に『百済記』にもとづくものであるといわれるが、『百済記』ではほんらい49年条と同一年に繫けられていたのではなかろうか。『日本書紀』は、49年条に対して、木羅斤資の記事をひきあげ、加羅七国平定記事などを造作し、また50年条・51年条を造作したため、52年条を3年ほどくりさげて繫年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もし本来『百済記』にあったとすれば、干支紀年であって、52年条の繫年は動かしがたい、というように理解されているが、『日本書紀』の造作において干支の繫年のみはぜったい動かさ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みかたが必要であろうか。

以上のような考えのもとで、『百済記』に記されていたと考える内容を整理すれば、つぎのようになる。

364年 百済が卓淳に使者を派遣した。

366年 百済に倭人（斯麻宿禰の従者爾波移）が卓淳人（過古）といっしょにやってきた。

367年 百済が倭に久氐らを派遣した。

この後、倭が職麻那那加比跪を百済に派遣してきた。

369年 百済王近肖古王はそれを厚遇し、さらに久氐らをつけて送った

久氐らは七枝刀・七子鏡などを記念としてもたらしした。

百済の使者は、卓淳まで、『魏志』倭人伝にみえる帯方郡からの行路と同様に、沿岸航路をとって、船でやってきたとみるのが自然である。卓淳は海岸の昌原地方にあたる。

そしてこの記事が示すように、そのように百済と卓淳との通交が成立したあとに、卓淳が仲介するかたちで倭と百済との通交がはじまる、というようになっているのは、極めて象徴的なことであり、おおまかに言えば、百済と加耶南部との関係があり、またいっぽう、倭と加耶南部との関係があり、加耶南部が仲介をするかたちで、百済と倭との関係が始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

以上、説明が長く煩雑になったが、わたしは、百済が369年に、七支刀と七子鏡を倭に贈った（ただし、もたらした使者が、到着したのは、370年でもよい）、と考えるのである。その背景には、加耶南部を介した、百済と倭との友好関係の成立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さて、七子鏡であるが、樋口隆康「百済武寧王陵と七子鏡」（史林 55-4）によれば、七子とは七乳のことで、七つの乳がある鏡を指す、ととらえ、武寧王陵から出土した獣帯鏡がちょうどそのように七つの乳があるため、それに類するものであろうとみている。武寧王の時代は、369年よりは百数十年あとであるが、百済にそのような鏡の伝統があ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のか。

ただし、武寧王陵出土の鏡は、南朝からの舶載品ととらえられている。七子鏡も舶載品であるとするれば、東晉との政治的関係は372年以後であり、年代的に問題が生じる。実は、七支刀にも、同様な問題があり、特に東晉の年号「泰和（太和）」を用いている点が指摘されることがあるが、それは、百済に流入した中国系の人物の存在を想定することによって解決する。しかし、七子鏡は、鏡自体の直接伝来を想定しなければならず、同様に考え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点は、なお課題として残したいが、ここではとりあえず、百済から倭へ鏡がもたらされた事実注目しておきたい。

3 『入唐求法巡礼行記』にみえる「捨鏡」

円仁の日記『入唐求法巡礼行記』大中元年（847）9月8日條に、

八日、聞惡消息、異常驚怕。無風、發不得。船衆捨鏡等祭神求風。僧等燒香、為當島土地及大人小人神等念誦、祈願平等得到本國、即在彼處為此土地又大人小人神等、轉金剛經百卷。至五更、雖無風、而發去。纔出浦口、西風忽至、便上帆向東行、似有神理相扶。從山島裏行、南北兩面、山島重重而參然。日欲已時、到雁島暫歇、是新羅南界、内家放馬之山。近東有？

龍寺莊、往往有人家二三所。向西南望見耽羅島。午後、風信更好、發船從山島裏行、到新羅國東南、出到大海、望東南行。

（八日、悪い消息を聞いて異常に驚ろき恐れたが、風がないので、出発できなかった。船乗りたちは鏡等を喜捨して神を祭り風を求めた。僧たちは焼香し、當島の土地および大人小人神のために念誦し、みないっしょに本國に到着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祈願した。すなわち彼處において、この土地および大人小人神のために金剛經百卷を転讀した。五更になって風がなかったけれども出発した。わずかに浦口を出ると、西風がたちまちやって来た。すぐに帆をあげて東に向かって行った。神理の扶助があったようである。山島の裏から行けば、南北兩面は山島が重重として泰然としていた。巳の時になろうとするころ雁島に到りしばらく休んだ。これが新羅の南界であり、宮廷が馬を放牧している山である。東に近くには？龍寺の莊園がある。往往にして人家二三所ある。西南に向かえば耽羅島を望見する。午後は風信が更によりくなり、船を發して山島裏に沿って行き、新羅國東南に到り、出て大海に到り、東南を望んで行った。）

とあり、船で風を待つときに、船衆が神に祈って風を求めた。その時に「捨鏡等」というのである。この船は、6月27日条に「船主王可昌の船を雇う」とあるように、王可昌の船で、王可昌は6月18日条にみえるように「楚州新羅坊」の人物である。円仁が、旅行の諸処において、新羅人やそのネットワークに大きな助力を得たことは、よく知られたことであり、日記においても詳細に記しているが、帰国の船も、新羅人の船を雇い入れて帰ったのであった。その後、9月17日に博多の西南の能挙島に到着し、無事帰国となったのであるが、10月6日条に「船上の四人に冬衣を給した」とある。『続日本後紀』卷17・承和14年（847）10月甲午条に、遣唐天台請益僧円仁及弟子二人・唐人四十二人、到自大唐。

とあり、「唐人四十二人」とするが、この時期の記録では、新羅人を唐人と呼んだり、表記したりすることが多く、この場合も、多くの乗員は新羅人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捨鏡」は、小野勝年によれば、「寄捨」「寄進」のことであるという。船の乗員たちには、そのような風習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行記』開成4年（839）5月2日条にも、西時、風停。任流到海口停留。道令汲水。日没之時、於船上、祭天神地祇。亦官私絹・額纈・鏡等奉上於船上住吉大神。

（酉の時に、風がやんだ。流れにまかせて海口に到って停留した。人をやって水を汲ませた。日没のとき、船上で天神地祇を祭った。また官私の絹・額纈・鏡等を船上の住吉大神にささげたてまつった。）

とある。これは、遣唐使一行の帰国船であるが、もともとの遣唐使船は、到着しても、往路での傷みが激しく、新羅訳語の金正南を通して、帰国のための船を求めさせている。

『行記』開成4年閏正月4日条に

依金正〔南〕寄請、爲令修理所買船、令都匠・番匠・船工・鍛工等卅六人、向楚州去。

（金正〔南〕の要請に従って、買った船を修理させるために、都匠・番匠・船工・鍛工等卅六人を、楚州に向かって行かせた。）

とあることでわかる。

これが新羅船であったことは、『続日本後紀』承和6年(839)8月己巳条に、

知入唐三箇船、嫌本舶之不完、倩駕楚州新羅船九隻、傍新羅南以歸朝。

(唐に入った三つの船が、本船が完全ではないのを嫌って、楚州の新羅船九隻を雇い入れ、新羅の南に沿って帰朝したのを知っている。)

とある通りである。『行記』開成4年4月24日条にも、

便聞本国朝貢使駕新羅船五隻、流着萊州廬山之邊。

(聞くところによれば、本国の朝貢使が乗った新羅船五隻は萊州の廬山のほとりに流れ着いた、と。)

とあっ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行記』同年3月17日条には、

運隨身物、載第二船、與長判官同船。其九隻船、分配官人。各令船頭押領。押領本国水手之外、更雇新羅人諳海路者六十餘人。每船或七或六或五人。

(身体に身につけていたものを第二船に運んで載せ、長判官と同船した。その九隻の船には官人を分配し、それぞれ船頭とさせた。本国の水手を指揮するほか、さらに新羅人の海路をよく知っている者六十餘人を雇った。船ごとにあるいは七人、あるいは六人、あるいは五人であった。)

とあり、新羅人の「海路を諳んずる者六十餘人」を雇っているが、それは水手や梢功として雇っているのである。同3月25日条には、

緣第一船新羅水手及梢功下船未來、諸船爲此拘留、不得進發。

(第一船の新羅水手および梢功が船を下りてまだ戻っていないので、諸船はそのためにより滞り、進發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とあり、同4月1日条にも、「新羅水手」がみえ、航路についての情報を述べている。

このように新羅船であり、乗員の多くは新羅人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が、船上住吉大神を祭っており、風を求めるのは、特に祈る神が定ま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か、特にこだわるものがなかったのか。また、新羅のみの風習ではなく、当時における航海の際の共通した風習というべき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で、紀貫之『土佐日記』には、荒れた海をしずめようと、舵取りが鏡を海に投げ入れるくだりがある(二月五日條)。やはり、住吉の明神に対するものである。日本ではむしろ、このパターンのほうが多いようであるが、風を期待するのとはまったく逆のことを祈るのであり、航海の便を祈るという点で共通すると言ってよいのかどうか。中国の例も含めて、なお追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4 『三国史記』『三国遺事』にみえる鏡伝承

『三国史記』『三国遺事』にも、鏡に関する記事がほとんどない。わずかに次のような記事が

ある程度である。まず『三国史記』に、巻48・薛氏女伝があり、

薛氏女。栗里民家女子也。雖寒門單族、而顔色端正、志行脩整。見者無不歆艶、而不敢犯。眞平王時、其父季老、番當防秋於正谷。女以父衰病、不忍遠別。又恨女身不得待行、徒自愁悶。沙梁部少季嘉實雖貧且窶、而其養志貞男子也。嘗悅美薛氏而不敢言。聞薛氏憂父老而從軍、遂請薛氏曰、僕雖一懦夫、而嘗以志氣自許。願以不肖之身、代嚴君之役。薛氏甚喜、入告於父。父引見曰、聞公欲代老人之行、不勝喜懼、思所以報之。若公不以愚陋見棄、願薦幼女子以奉箕箒。嘉實再拜曰、非敢望也、是所願焉。於是嘉實退而請期。薛氏曰、婚姻人之大倫、不可以倉猝。妾既以心許、有死無易。願君赴防交代而歸、然後卜日成禮未晚也。乃取鏡分半、各執一片云、此所以爲信、後日當合之。嘉實有一馬。謂薛氏曰、此天下良馬。後必有用。今我徒行。無人爲養。請留之以爲用耳。遂辭而行。會國有故、不使人交代、淹六季未還。父謂女曰、始以三季爲期、今既踰矣。可歸于他族。薛氏曰、向以安親故強與嘉實約。嘉實信之、故從軍、累季飢寒辛。若況迫賊境、手不釋兵、如近虎口、恒恐見啗。而弃信食言、豈人情乎。終不敢從父之命。請無復言。其父老且耄、以其女壯而無伉儷、欲強嫁之、潛約婚於里人、既定日引其人。薛氏固拒、密圖遁去而未果。至廐、見嘉實所留馬、大息流淚。於是嘉實代來。形骸枯槁衣裳藍縷、室人不知謂爲別人。嘉實直前、以破鏡投之。薛氏得之呼泣。父反(及)室人失(大)喜、遂約異日相會與之偕老。

(薛氏の女。栗里の民家の庶民のむすめである。身分の低い一族の出ではあっても容貌は端正でこころざしや行動は、正しかった。見るものがその美しさをむさぼりうらやまないものがいなかったが、敢えて犯そうとするものはいなかった。眞平王の時(576～632)、その父が年老いて、正谷に辺境防備にいく当番にあたった。むすめは、父が衰えてその上病気がちなので、遠く離れることが耐えられず、しかも女の身なのでいっしょについて行く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残念に思い、ただ自分で憂えもだえていた。そのころ、沙梁部の少年で嘉実というものが、貧しくてやつれてはいたが、こころざしを高くもって貞節な男子であった。つねづね薛氏の美しさを好んでいたが、敢えて言わなかった。薛氏の父が老いて従軍することを憂えていることを聞き、ついに薛氏に願い出た。僕は、臆病で気が弱い男ですが、いつもこころざしを高く持っていることには自信があります。不肖の身ですが、嚴君の兵役に代わりたいと願います、と。薛氏はたいへん喜んで中に入って父に告げた。父が会って言った。あなたがこの老人に代わって兵役に行こうとするのを聞いた。たいへん喜ばしいことであるが、どうすればそれに報いることができるかが心配である。もしあなたが、愚かでこころがせまいと言って棄てないならば、わたしの幼ないむすめをそうじをする下女として(妻として)差し出したい、と。嘉実は一拜して言った。無理に望むことはありませんが、それはわたしも願うことであります、と。こうして嘉実は退出して、結婚の時期を決めようとした。薛氏が言った。婚姻は人の守るべき大きな道德のひとつです。あわただしくするべきではありません。わたしはもはや心で許しております。死ぬことがあろうと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防備に赴き、交代して帰ってきてそれからあとに日を占って決めてから婚礼をあげても遅くはありません、と。そこで鏡を取り出し、半分に分けてそれぞれ一片を執って言った。これを割り符といたしましょう。後日これをあわせましょう、と。嘉実に

一匹の馬がいた。薛氏に言った。これは天下の良馬です。後日、きっと有用になりましょう。今わたしは歩いていきます。そのため飼育するものがおりません。これを留めて役に立ててください、と。ついに別れを告げて出発した。たまたま国であるできごとがあつて、防備の兵を交代させなかった。そのため六年たっても帰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父はむすめに言った。最初、三年を期限とした。今はもうそれを過ぎてしまった。他の家に嫁ぐのがよい、と。薛氏が言った。さきにお父さんを安心させるために無理に嘉実と約束しました。嘉実はそれを信じて、そのために従軍し、年を重ねて、飢寒に耐えて苦勞しております。まして敵地に近く、手から武器を離さず、虎の口に近いところにいるようです。いつも喰われるのを恐れております。それなのに信義に背いて食言するのは、はたして人の情といえましょうか。どうしてもお父さんの命には従うことはできません。二度といわないでください、と。その父は老いておいぼれていた。そのむすめが壮年になってもつれあいがいないので、無理やり嫁がせようと考え、こっそりと里人と婚姻の約束をして、日を決めてその人を迎え入れようとした。しかし薛氏は固く拒んで、ひそかに逃げだそうとした。しかしそれもできないまま馬小屋に来て、嘉実が残していった馬を見て、ため息をついて涙を流した。この時になって嘉実が交代して戻ってきた。やせて骸骨だけになり、衣裳もぼろぼろになっていた。そのため家人はわからず、別人だと思った。嘉実は進み出て、割れた鏡を投げ出した。薛氏はそれを手にして大声で泣いた。父と家人もたいへん喜び、ついに別の日を定めて会い、いっしょに生涯を暮らした。）

『新增東國輿地勝覽』巻21・慶尚道・慶州府・烈女条に「薛氏」をとりあげているが、『三国史記』の伝に拠り、それを節略するのみである。

鏡を割り符として用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が、何らかの特殊な習俗と関わ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ようである。庶民のむすめでも、手元に鏡が置かれていたこと、つまり日常的に用いられていたことは知ることができるが、それ以上の情報を得られるわけではない。

次に、巻50・弓裔伝に、

先是有商客王昌瑾、自唐來寓鐵圓市廛。至貞明四季戊寅、於市中見一人狀貌魁偉、鬢髮盡白、着古衣冠、左手持鬘碗、右手持古鏡。謂昌瑾曰、能買我鏡乎。昌瑾即以米換之。其人以米俵街巷乞兒、而後不知去處。昌瑾懸其鏡於壁上、日映鏡面、有細字書。讀之若古詩。其畧曰、上帝降子於辰馬、先操鷄後搏鴨。於巳年中二龍見。一則藏身青木中。一則顯形黑金東。昌瑾初不知有文。及見之謂非常、遂告于王。王命有司與昌瑾物色求其鏡主、不見。唯於勃颯寺佛堂、有鎮星塑像、如其人焉。王嘆異、久之命文人宋含弘・白卓・許原等解之。含弘等相謂曰、上帝降子於辰馬者、謂辰韓馬韓也。二龍見一藏身青木一顯形黑金者、青木松也。松岳郡人、以龍爲名者之孫、今波珍浪侍中之謂歟。黑金是也。今所都是圓之謂也。今主上初興於此、終滅於此之驗也。先操鷄後搏鴨者、波珍浪侍中先得鷄林後收鴨綠之意也。宋含等相謂曰、今主上虐亂如此。吾輩若以實言、不獨吾輩爲菹醢、波珍浪亦必遭害。迺辭告之。

（これより以前、商人の王昌瑾というものがいて、唐からやって来て、鉄圓の市廛に寓居した。貞明四年戊寅（九一八）になって、市中に、すがたかたちは大きく鬢が白く、古い衣冠を身につけ、左手に磁器の碗を持ち、右手に古い鏡を持っている一人の男がいた。昌瑾に向

かって言った。わたしの鏡を買うことができるか、と。昌瑾はそれで米を与えてそれに換えた。その人は、米を街巷の乞食の子に与え、その後どこへ行ったかわからなくなった。昌瑾がその鏡を壁の上に懸けたところ、日光が鏡面に映って、細い字の書がかびでた。それを讀むと、古詩のようであった。その概略は次の通りである。「上帝が子を辰馬に降すと、先に鶏を操り、あとで鴨を打つ。巳年のうちに二龍が現れる。一つはその身を青い木の中に隠す。一つは形を黒金の東に現すであろう」、と。昌瑾は最初、文章があるのを知らなかった。それを見て、普通ではないと思って、ついに王に告げた。王は役人に命じて、昌瑾といっしょにその鏡の主を探させたが、見つからなかった。ただ勃颯寺の仏堂に鎮星（土星）の塑像があり、その人のようであった。王は長い間、嘆息して、文人の宋含弘・白卓・許原らに命じてそれを解釈させた。含弘らがたがいに言い合った。「上帝が子を辰馬に降す」というのは、辰韓・馬韓を指すものである。「二龍が現れ、一つはその身を青い木に隠し、一つは形を黒金に現す」というのは、青い木とは松のことであり、松岳郡の人で龍を名前にしている人の孫のことである。今の波珍浪・侍中のことであろうか。黒金とは鉄のことである。今、都にしている鉄円のことである。今、主上が最初にここで興り、最後にここで滅ぶという予兆である。「先に鶏を操り、あとで鴨を打つ」というのは、波珍浪・侍中が先に鶏林を得、あとで鴨緑を収めるという意味である、と。宋含らはたがいに言った。今、主上が暴虐で乱行しているのは、この通りである。われわれが事実を告げれば、われわれだけが殺されて塩漬けにされるだけでなく、波珍浪もまた必ず害に遭うことであろう、と。そこでことばを飾って告げた。）

これは、日光鏡のようなものを想定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そしてそれは、日常的なものとは違うということである。

『三国遺事』巻2・興徳王鸚鵡条には、次のような記事がある。

第四十二興徳大王寶曆二年丙午（826）即位未幾有人奉使於唐將鸚鵡一雙而至不久雌死而孤雄哀鳴不已王使人掛鏡於前鳥見鏡中影擬其得偶乃喙其鏡而知其影乃哀鳴而死王作歌云未詳

（第四十二興徳大王は寶曆二年丙午（826）に位に即いた。それからまもなく使者として入唐した人が鸚鵡一つがいを持って帰ってきた。それほど時間がたたないうちに雌が死んだ。ひとりになった雄が哀しく鳴いてやまなかった。そこで王は、人に命令して、鏡を前に掛けさせた。鳥は、鏡の中の姿を見て、妻を得たのかと思い、その鏡をつついて影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た哀しく鳴いて死んだ。王はそのことを歌にしたというのが、明らかではない。）

鸚鵡と鏡にまつわるエピソードは、唐にもあるようであるが、その影響であろうか。なお鸚鵡は、唐においては、林邑など南方から献上されている記事があるが、新羅から日本にもたびたびもたらされている（大化3年、天武14年、天平4年）。

『三国史記』『三国遺事』における、鏡をめぐるエピソードとしては、このくらいであり、特に日韓関係に関わって、材料を追加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はない。

おわりに

以上、鏡をめぐる伝承史料をもとに、日韓関係について考え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検討した。アメノヒボコ伝承における宝物の鏡と百済から献上された七子鏡は、新羅・百済から鏡がもたらされた、という点で注目される。新羅・百済に特に鏡が多い、というわけではなく、『三国史記』『三国遺事』を検索しても、鏡に関わるエピソード自体が、とりあげた2、3の例で全てである。それはまた、新羅・百済において鏡に対する関心はそれほど大きくはなかった、むしろ稀薄であったという想像と相応じるものであるが、それにも拘わらず、新羅・百済から倭へという鏡の流れが示され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現実には、新羅・百済から、鏡がもたらされることがあるのかどうかといえば、そのような例はほとんどないと思う。それだけに、伝承的に、贈られるモノとして、鏡が明示されていることは興味深い。